

'97 태권도 대표팀 발진하다!

거세게 불어닥친 세대교체 바람
세계챔피언 김제경, 이름값 해내



▲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심기선(경희대·왼쪽)이 김병욱(상무)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 심기선이 1:0으로 이겨 대표선수 자리를 차지했다.

97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선발전(2월 12~14일 · 국기원)에서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남녀 각 8체급이 토너먼트방식으로 치른 이 최종선 발전에는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64명, 지난해 국가대표 1·2진 그리고 우수 선수선발대회 1·2위 입상자 등 모두 128명이 출전 대표선수의 자리를 놓고 겨루었다. 출전선수 가운데 고교선수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부에서는 고교선수가 14%(9명)였던 반면에 여자부에서는 31%(20명)로 남자부보다 여자부에서 고교선수파위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전국체전에 여자부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종선발전은 열리기전부터 남녀 양쪽 모두 신예들의 도전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최종선발전 경기총평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남자부는 세계챔피언 등 고참 강호에 대항 2·3학년 선수들의 도전이 거셌으며 여자부는 경기력이 노쇠한 세계챔피언을 밀어제치고 고교 및 대학 신예의 진출이 뚜렷했다.

특히 실업선수들이 체면을 지킬 수 있을 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남자부에서는 세계챔피언이었던 진승태(진로식품)가 플라이급 2위, 국가대표출신 김현용(영천시청)이 밴텀급 2위로 각각 밀려나 세계챔피언 가운데는 김제경(상무)만이 헤비급 대표선수로 뽑혔을 뿐이다.

무릎부상으로 인해 94년 10월부터 코치 겸 선수로 발령받아 선수로서의 활동이 뜸했던 헤비급의 김제경은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최종전에서도 헤비급 1위를 기록함으로써 세계챔피언의 이름값을 했다.

김제경은 90년 대통령기대회 미들급 1위를 시작으로, 91년 대통령기 헤비급 1위, 92년 올림픽대회 헤비급 1위, 93년 세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등 뛰어난 전적을 지니고 있고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됨으로써 세계대회에서 그의 화려한 기량을 다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남자부 전적

▲핀급

결 승 전 김병태(용인대) 4:1 박희강(한체대)
준결승전 김병태 우세승 1:1 김종성(여수고)
박희강 2:1 조성민(경희대)

▲플라이급

결 승 전 최만용(한체대) 1:0 진승태(진로식품)
준결승전 최만용 5:2 서상훈(진로식품)
진승태 2:1 김의철(문성고)

▲밴텀급

결 승 전 황병련(우세승) 1:1 김현용(영천시청)
준결승전 황병련 우세승 1:1 김진규(한체대)
김현용 4:2 김건일(보성주택)

▲페더급

결 승 전 신준식(풍생고) 기권승 김인동(조선대)
준결승전 신준식 우세승 3:3 조진호(상무)
김인동 우세승 4:4 정기원(상무)

▲라이트급

결 승 전 심기선(경희대) 1:0 김병욱(상무)
준결승전 심기선 7:4 박택용(상무)
김병욱 2:1 이준희(용인대)

▲웰터급

결 승 전 김경훈(한체대) 4:2 양원철(진로식품)
준결승전 김경훈 3:2 장종오(상무)
양원철 3:2 고성석(청주대)

▲미들급

결 승 전 이동완(한체대) 2:1 김민우(동아대)
준결승전 이동완 4:1 최희성(한체대)
김민우 1:1 강동국(상무) 잠점 1

▲헤비급

결 승 전 김제경(상무) 4:0 방원철(한체대)
준결승전 김제경 4:1 문대성(동아대)
방원철 4:2 김정규(상무)

남자 플라이급 준결승에서 최만용(한체대)은 지난해 유영택(용인대)을 맞아 1회부터 다양한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며 5 : 2로 완승했다.

또 최선수는 플라이급 결승 경기에서 지난해 국가대표인 진승태(진로식품)와 치열한 접전 끝에 1 : 0의 신승을 거두면서 플라이급 국내 최강자로 떠올랐다. 최선수는 96년 우수선수대회 1위, 제2회 대만 국제대회 1위의 기록을 지니고 있는 신예다.

진승태는 1월말에 있었던 예선전에서도, 지난해 국가대표 2진으로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바 있는 성균관대 1학년 박희철에게 준준결승에서 패하여 파란을 일으켰었다. 우수선수 추천의 케이스로 최종전에 참가해 2위에 머문 진선수가 과거의 화려한 컴백을 이

룰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국가대표 출신 김현용(영천시청)도 신예인 성균관대 황병련에게 결승에서 패해 밴텀급 2위에 머물렀다. 황병련은 대학연맹 대회 1위, 같은해 대통령기 2위, 최우수 선수권 2위였으며, 96년에는 이렇다할 기록을 내지 못했었다. 97년에는 황성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또 여자부 페더급 경기에서도 신예인 전용순(춘천시청)이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해 국가대표인 이승민(삼성물산)을 맞아 열화와 같은 공격으로 2회 3 : 3 동점을 만든 뒤 돌려차기, 뒤차기, 얼굴 돌려차기로 3회에 4득점 7 : 5로 승리를 거두었다. 진선수는 9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96년 세계대학선수권대

인천시청 6명팀에서 국가대표 4명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부 4체급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한 인천시청이 큰 관심을 모았다.

95년 5월에 창단된 인천시청은 임신자 감독의 지휘아래 6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 플라이급의 서미라, 밴텀급의 황은숙, 라이트급의 신동선, 웰터급의 조항미가 각 체급에서 우승함으로써 실업팀 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4체급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인천시청의 임신자 감독에게 팀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물어보았다.〈정순영 기자〉

뛰어난 여성지도자 임신자 감독

정 : 축하드립니다. 6명으로 구성된 실업팀에서 국가대표가 4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임 :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선수들의 기량과 능력을 믿었지만 기대보다 더 선전해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여자부 플라이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미라를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인천시청팀의 임신자감독

팀은 평균연령이 24세입니다. 어떻게보면 선수로서는 노령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정 : 국내 유일의 실업팀 여자감독이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훈련방법에 있어 남다른 점이 있으시다면?

임 : 섬세한 면이 있다고 할까요? 대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 선수들의 개인고민도 듣고 서로 같이 많

회 3위의 전적을 가진 선수다.

89, 95년 세계대회 2연패의 뱀텀급 원선진(삼성물산)은 준준결승에서 용인대 김병희선수에게 0:1로 아쉽게 졌다. 93, 95년 세계대회 2연패의 이승민과 원선진의 패배를 두고 세대교체의 바람을 느끼는 관계자가 많았다.

이런 중에도 웰터급 조항미(인천시청)는 대표자리를 지켰다. 조항미는 91, 93, 94, 95, 96년에 이어 올해도 대표자리를 사수함으로써 6년째 국내 웰터급을 대표하는 선수로 그 위치를 공고히하고 있는 스타급 선수다. '96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제5회 세계대회 1위의 화려한 국제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은 부분을 공유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믿게되고 이런 신뢰감이 엄격한 훈련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정: 선수 개개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텐데요.

임: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거니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극약처방도 쓰죠. '너 계속 그럴거면 그거 써' 뭐 이런겁니다. 그게 믿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만두겠다는 사표 말입니다.

정: 경기때 보니까 선수들과 껍속말을 많이 하시던데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지면 밥도 안줘' 뭐 그런 자극적인 얘기라도?

임: 그런 무서운 얘기는 안하고요(웃음), 자세한 내용은 기밀인데요(웃음).

정: 이번의 패거를 계기로 임감독님의 지도방법이라든가 크제는 여자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임: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회에서의 체급은 남녀 각 8체급씩 동일한데 지도하는 감독의 성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여자부 전적

▲핀급

결 승 전 박정희(한체대) 기권승 양소희(한체대)
준결승전 박정희 2:1 이정윤(용인대)
양소희 4:0 정하나(인천북공고)

▲플라이급

결 승 전 서미라(인천시청) 3:2 윤송희(한체대)
준결승전 서미라 우세승 2:2 김보인(경희대)
윤송희 우세승 1:1 심혜영(리라공고)

▲뱀텀급

결 승 전 황은숙(인천시청) 6:1 전남수(경성여설고)
준결승전 황은숙(인천시청) 2:1 이지은(경희대)
전남수 3:2 김병희(용인대)

▲페더급

결 승 전 진운순(인천시청) 우세승 2:2 정재은(한림여설고)
준결승전 진운순 7:5 이승민(삼성물산)
정재은 8:3 채혜경(경희대)

▲라이트급

결 승 전 산동선(인천시청) 4:3 강해은(상명대).
준결승전 산동선 3:0 김혜선(인천시청)
강해은 2:1 이혜경(한체대)

▲웰터급

결 승 전 조항미(인천시청) 2:1 안근아(한체대)
준결승전 조항미 5:3 김수현(리라공고)
안근아: 조미례(한체대) 계체실격

▲미들급

결 승 전 박선미(춘천시청) 2:1 우연정(고려대)
준결승전 박선미 우세승 1:1 한은진(조선대)
우연정 우세승 3:3 박은희(은광여고)

▲헤비급

결 승 전 정명숙(경희대) 3:2 권지희(리라공고)
준결승전 정명숙 3:1 서정화(강원대)
권지희 5:5 김윤정(상명대) 감점 1

특집1

남자 국가대표

부지런한 훈련개미

핀 급

-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유치원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아버지의 강요
- * 주특기 : 얼굴 공격
-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 이상
- * 라이벌이 있다면 : 한체대 박희강
- * 주요 경기경력 : '96 최종선발 1위
'96 아시아선수권 1위

김 병 태

<용인대>

- * 좋아하는 가수 : 남자-김정민, 여자-없음
- * 즐겨 부르는 노래 : 트로트
-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최민수, 여자-김혜수
- * 좋아하는 음식 : 한식
- * 좋아하는 간식 : 과자
- * 재미있었던 만화 : 없음
-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 쇼
- * 인상에 남는 책 : 아버지
- * 즐겨입는 옷차림 : 청바지에 편한 옷차림
- * 취미 : 여행
-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기타 연주
-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경기운영이 아직 미숙하다. 스텝 밝는 연습이 더필요. 이번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 * 생년월일 : 1975. 6. 19
- * 출생지 : 부산 * 키 : 170cm
- * 학력 : 강동초등학교
재송중학교

- 대전체육고등학교
-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국어, 한국사

코치의 한마디

성실히 훈련에 임하고, 성격이 대단히 활발하고 밝아 불임성도 있어서 귀엽을 받는다.

선수로서의 경기를 대기하면서 계속 상대선수에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머리가 좋고 자세가 된 선수다.

장기인 앞발 들어찍기로 매 경기마다 2~3점씩 뽐낸다.

문제는 체력관리. 그리고 이제까지의 화려한 기록에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다.

답답하거나 외로울때 다가와서 웃겨주는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다.(조임형 코치)

PROFILE

경기 푸는 머리 최고

플라이급

- *생년월일 : 1975. 3. 20
- *출생지 : 전북 임실 *키 : 168cm
- *학력 : 서울 쌍문초등학교
서울 선덕중학교
서울 동성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국어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6살 때 (1981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건강 삼아
- *주특기 : 뒤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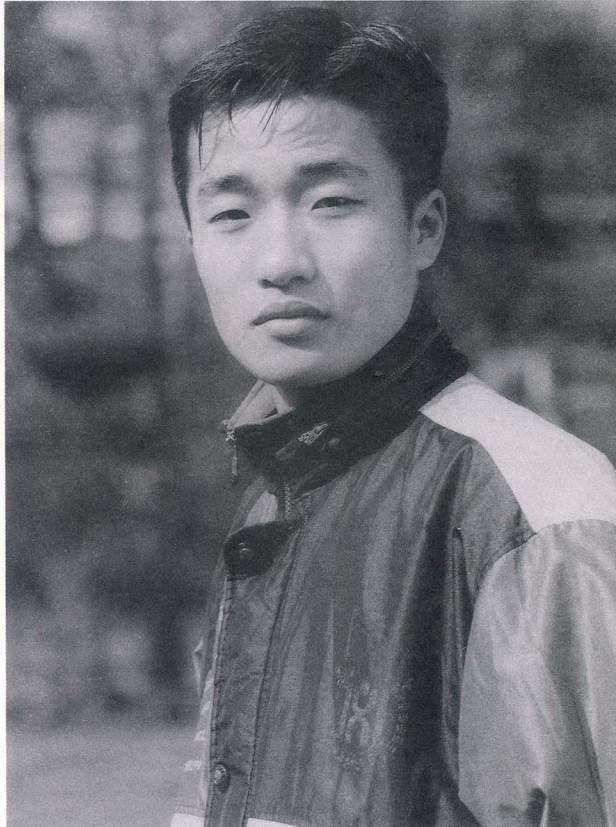
최 만 용

<한체대>

- *하루 훈련시간 : 3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 김천규
- *주요 경기경력 :
'96 최우수선수 선발전 1위
제2회 대만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 1위 등
- *좋아하는 가수 :
남자-김진모, 여자-이소라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최민수
여자-옥소리
- *좋아하는 음식 :
라볶기
- *좋아하는 간식 :
만두
- *재미있었던 만화 : 형그리 Best 5
- *인상에 남는 책 : 남자의 향기
- *즐거입는 옷차림 : 정장, 캐주얼
- *취미 : 골프, 당구



▲ 옥 소리



- *남다른 특기 (태권도 기술 말고)
: 카드놀이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체력보완, 세계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보다 나은
실력향상에 노력할.

코치의 한마디

핀급에서 플라이급으로 바꾼지 1년밖에 안돼서 파워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른 선수에 비해 타이밍 포인트가 반렘포정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진 선수다.

경기운영면에서는 머리로 경기를 뛰며 스스로 알아서 풀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코치로서 민음이

가는 선수다. 경기를 운영하는 두뇌는 최고라고 본다.

화려한 국내전적을 가진 이 선수의 주특기는 앞발 빠른 발 뒤틀기와 오른 발 뒤틀기. 국제대회를 뛰려면 파워보강을 위해 체력을 키워야 하고 핵심을 찌르는 공격력을 갖추어야 한다.

(양대승 코치)



남자 국가대표

체급 조정된 두각

밴텀급

리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4학년 때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호기심

* 주특기 : 나래차기, 빠른발

* 하루 훈련시간 : 6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 정대영

* 주요 경기경력 :

'95 대학연맹 춘·추계 2위

'95 대통령기 2위

황 병 련

<성균관대>

'95 최우수 선수권 2위

'97 국가대표 선발전 1위

* 좋아하는 가수 :

남자-H.O.T

여자-이소라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최수종

여자-옥소리

* 좋아하는 음식 : 라면

▲ H.O.T

* 좋아하는 간식 : 토스트

* 인상에 남는 책 : 이별없는 세상

* 즐겨읽는 옷차림 : 청바지, 남방

* 취미 : 우표수집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문제. 경기할때 적극적으로

기술발휘 하도록 노력할 것.

물론 세계대회에서 화려한

플레이로 우승하는 것.

* 생년월일 : 1976. 3. 10

* 출생지 : 강원도 * 키 : 170cm

* 학력 : 옥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감독의 한마디

고등학교때 우수한 전적이 없는 선수여서 스카웃 당시 고민도 했다. 그런데 플라이업에서 뛰던 이 선수를 밴텀급으로 올려 뛰게 한 것이 적중해서 대학교 1학년때 5개 시합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는 두각을 나타냈다. 무리한 체중감량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어쨌든 이 선수는 제가

93년 성균관대를 처음 맡은 이후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고 다섯번째 국내메달을 안겨준 보배가 되었다. 경기전에는 상대 선수에 대한 느낌을 감독에게 솔직히 말하고 다른 선수들이 하는 걸 먼저 가서 보고 파악하는 열심을 가진 선수다.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

(김범수 감독)

PROFILE

유일한 고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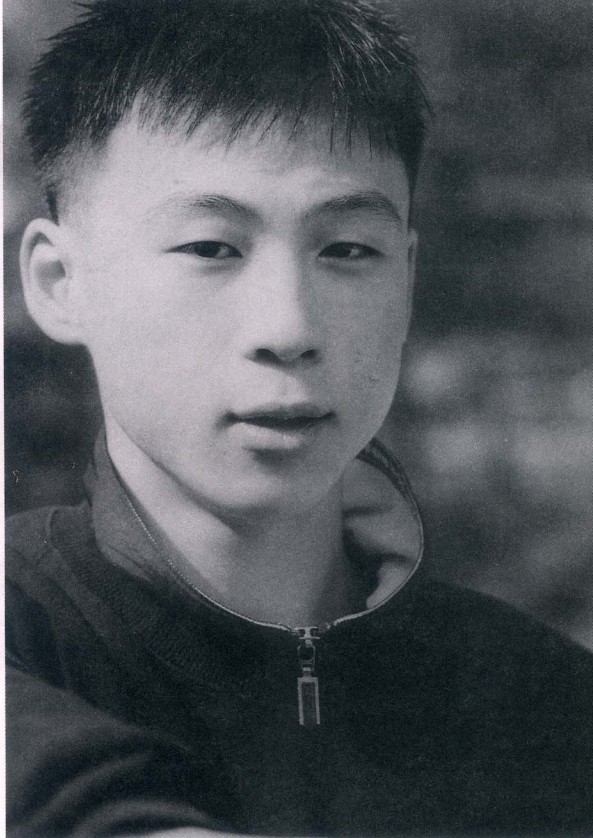
페더급

- *생년월일 : 1980. 1. 13
- *출생지 : 성남시 *키 : 172cm
- *학력 : 단대초등학교
서중학교, 풍생고등학교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국어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2학년 때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몸이 약해서
- *주특기 : 뒷차기
- *하루 훈련시간 : 4시간

신 준 식

<풍생고>

- *라이벌이 있다면 : 김인동
- *주요 경기경력 :
'97 국가대표 예선전 2위
- *좋아하는 가수 :
남자-김정민, 여자-이소라
- *즐거 부르는 노래 : 애인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한석규
여자-신은경
- *좋아하는 음식 :
고기
- *좋아하는 간식 : ▲신 은 경
빵
- *재미있었던 만화 : 둘리
- *인상에 남는 책 : 아버지
- *즐거입는 옷차림 : 정장
- *취미 : 농구, 독서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농구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한번 차고 서있는 것이

부족하다. 2000년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

코치의 한마디

국가대표중 유일한 고교생.
온화한 성격에 운동선수답지 않
게 상대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 일
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조용
하지만 일단 경기장에 서면 눈빛
부터 달라진다. 뒷차기, 나래차기
를 잘하는 이 고등학교생 선수에 대
한 우려는 한가지. 대표선수로 갑
자기 너무 커버려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부담
스러워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허벅지가 육상선수의 그것과 같
이 굵고 강해서 폭발적인 힘이 대
단하지만 아직 경기 운영이나 노
련미가 떨어진다. 리듬을 조절하
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줍음도 많
고 요즘 신세대답지 않게 착실하
다.(이영배 코치)



남자 국가대표

개성강한 승부사

라이트급

대전 체육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2학년 때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몸이 허약해서

* 주특기 : 받아차기, 뒷차기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

경희대 라이트급 선수들

* 주요 경기경력 :

심 기 선

〈경희대〉

아시아 선수권 1위

* 좋아하는 가수 :

남자-나훈아, 여자-이미자

* 즐겨 부르는 노래 :

젊음 미소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최재성

여자-심혜진

* 좋아하는 간식 : 빵

* 좋아하는 음식 : 김치찌개

* 인상에 남는 책 : 삼국지

* 즐겨입는 옷차림 : 청바지

* 취미 : 당구

* 남다른 특기 (태권도 기술 말고)

: 축구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기술이 단조롭다.

다양한 기술을 보완하여

세계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



▲ 최 재 성

* 생년월일 : 1975. 7. 20

* 출생지 : 경기도 * 키 : 184cm

* 학력 : 용인초등학교

태성중학교

코치의 한마디

키 184cm의 준수한 용모를 가진 심기선 선수. 자기 체급에서 신장이 좋은 편인 이 선수는 그래서인지 몸이 좀 뾰뚱한 편인데 희한한 것은 이를 자신의 특성으로만 들어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훈련때도 발차기의 각도가 남들보다 높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만의 감각과 자

세로 제압하는 기술을 가졌다. 유연성 훈련을 많이 하는데도 교정이 잘 안되는데 이로인해 게임운영이 단조로워 지기도 하지만 강한 승부욕과 하고자 하는 집념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내성적인 성격인데 외모(?) 때 문인지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다.(아영수 코치)

PROFILE

상대알고 백전백승

웰터급

- * 생년월일 : 1975. 7. 15
- * 출생지 : 서울 * 키 : 196. 5cm
- * 학력 : 성내초등학교
자양중학교
동성고등학교
학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미술
-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3학년 때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친구의 권유

김 경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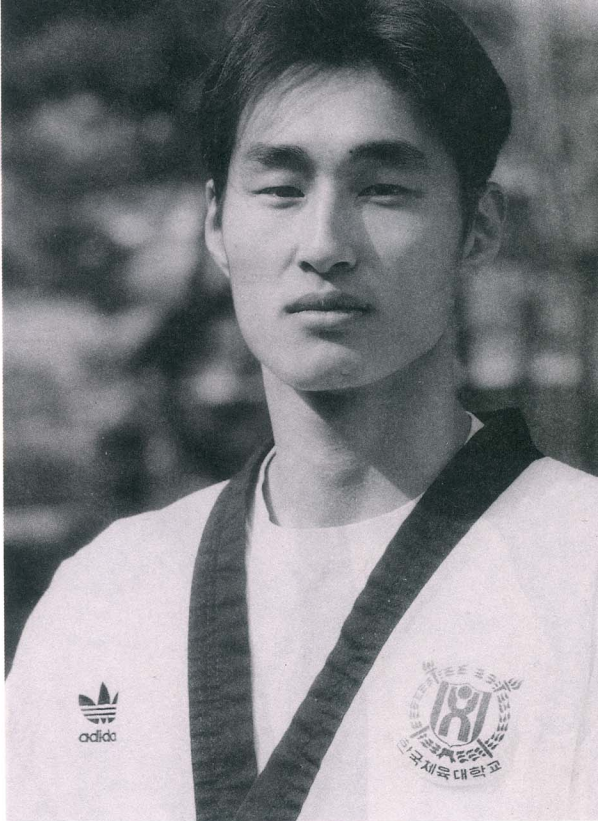
<한체대>

- * 주특기 : 뒷차기
- * 하루 훈련시간 : 3시간
- * 라이벌이 있다면 : 김기철
- * 주요 경기경력 :
'96 아시아 선수권대회 1위
- * 좋아하는 가수 :
남자-이승철, 여자-신효범
-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손지창, 여자-박주미



◀ 박 주 미

- * 좋아하는 음식 : 찌개류
- * 좋아하는 간식 : 짜장면



- * 재미있었던 만화 : 슬램덩크
- * 인상에 남는 책 : 영웅문
- * 즐겨입는 옷차림 : 청바지
- * 취미 : 당구
-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농구

코치의 한마디

197cm의 신장과 강한 체력이 바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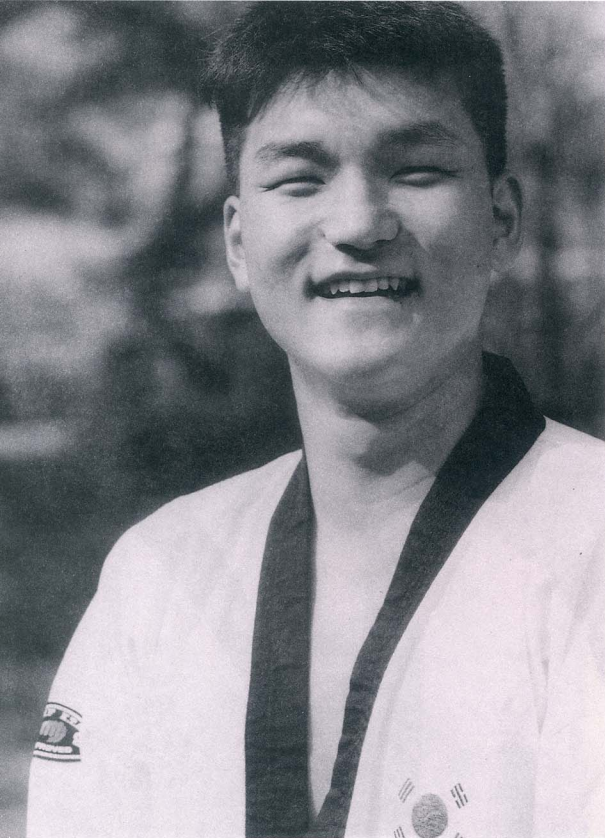
출전하기 전에 상대선수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두면 반드시 승리하는 선수다.

신장에 비해 발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아주 적합한 스타일이다.

키 때문에 군대면제를 받게 된 유일한 태권도 선수일 정도로 최강 신을 자랑한다.

상대선수가 소극적일때 너무 적극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경기운영의 노련미를 쌓으면서 극복해나갈 것이다.

(양대승 코치)



남자 국가대표

필성부른 떡잎

미들급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어머님의 권유
- *주특기 : 빠른발, 받아차기,
턴, 뒷차기
- *하루 훈련시간 : 3시간 30분
- *라이벌이 있다면 : 상무 강동국,
동아대학교 김민우
- *주요 경기경력 :
12회 세계선수권 1위
아시아 선수권 1위
- *좋아하는 가수 : 남자-김건모

이 동 완

<한체대>

- *즐거 부르는 노래 : 김건모 노래
- *좋아하는 텔런트 :
남자-박중훈, 여자-채시라
- *좋아하는 음식 : 부대찌개
- *좋아하는 간식 : 빵
- *재미있었던 만화 : 슬램덩크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 :
주말 드라마
- *인상에 남는 책 : 아버지
- *즐거입는 옷차림 : 청바지
- *취미 : 당구, 독서
- *남다른 특기 (태권도 기술 말고)
: 농구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다양한 기술과 방어력의 향상.
더욱 열심히 해서 오래도록 선
수로 뛰고 싶고, 지도자로 남
고 싶다

*생년월일 : 1975. 5. 24

서울체육고등학교

*출생지 : 경기도 *키 : 187cm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학력 : 문산초등학교
서울체육중학교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유치원 5살때

코치의 한마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좋은 선수다.

초등학교때 태권왕 겨루기대회에서 우승한, 한마디로 싸이 좋았던 선수. 그래서 아주 노련하다.

오른발 돌려차기가 주무기인데 단점이라면 너무 자신있게 경기를

뒀다는 것. 혼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자신감은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성격이 아주 좋아서 야단을 맞고 반성한 후에는 다시 기운차게 훈련을 하는 씩씩한 선수.(양대승 코치)

PROFILE

재기 성공한 천하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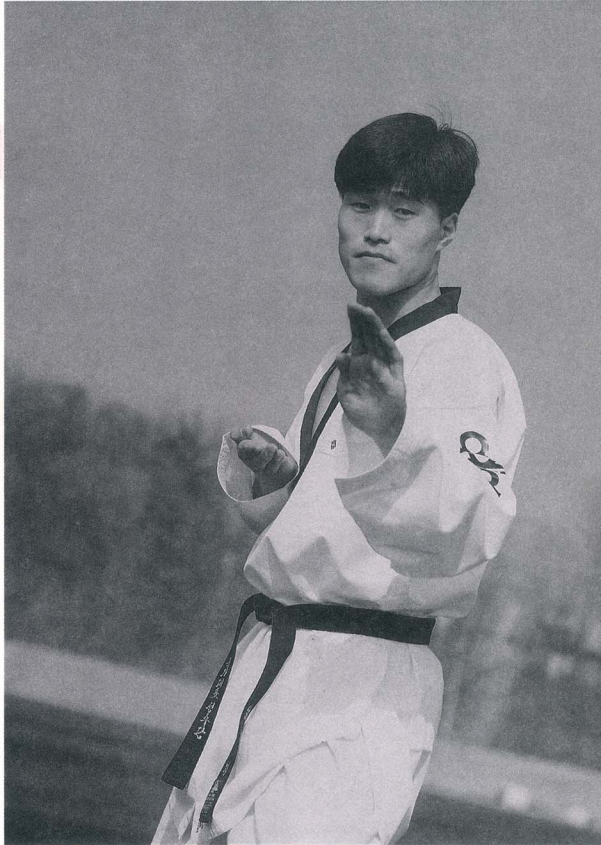
헤비급

- * 생년월일 : 1970. 11. 10
- * 출생지 : 경남 * 키 : 187cm
- * 학력 : 울산 병영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울산 공업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사회체육과
-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국어
-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5학년 때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고기 태권도 선수육성

김 제 경

<상무>

- * 주특기 : 뒷차기
- * 하루 훈련시간 : 5~6시간
- * 라이벌이 있다면 :
상무 김정규, 동대 문대성
- * 주요 경기경력 :
'90 대통령기 미들급 1위
'91 대통령기 헤비급 1위
'92 올림픽 1위
'93 세계선수권대회 1위
'95 세계선수권대회 1위
- * 좋아하는 가수 : 남자-이문세
- * 즐겨 부르는 노래 : 파랑새
- * 재미있었던 만화 : 홍길동
- * 인상에 남는 책 : 토지
- * 즐겨입는 옷차림 : 캐주얼
-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축구
-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유연성도

길러야 함.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코치의 한마디

다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국내
의 헤비급의 최강자.

수많은 기록과 화려한 전적이
김전수의 위치를 말해주지만 본인
은 겸손하다.

187cm의 장신에서 나오는 힘으
로 위력적인 뒷차기를 적중시킬
때면 관중들은 환호한다.

선수급 코치로 뛰고 있는 김제

경 전수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알
아서 조절하는 코치급 선수다.

한때 다리부상으로 경기를 뛰기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선
수였기에 더욱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나이가 있으니 체력적
인 부분과 유연성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영갑 코치)



여자 국가대표

피땀은 미완의 대기

핀급

- *주특기 : 오른발 받기
- *라이벌이 있다면 : 체육대 양소희 선배
- *주요 경기경력 : '96 국가대표예선 1위
'96 여자 개인선수권 1위
'96 용인대학교총장기 1위
- *좋아하는 텔런트 : 남자-이병헌, 여자-김혜수
- *즐거 부르는 노래 :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박 정 희

<한체대>

- *좋아하는 가수 : 남자-신승훈
여자-김완선
- *좋아하는 음식 : 김치찌개
- *좋아하는 간식 : 과일 ▲신 승 훈
- *재미있었던 만화 : 둘리
- *인상에 남는 책 : 아버지
- *즐거읽는 옷차림 : 청바지, 티
- *취미 : 음악감상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뜨게질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모든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체력적인 면. 하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이번에 월드컵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오겠다.

*생년월일 : 1979. 1. 20

*키 : 160cm

*학력 : 옥구 초등학교
옥구 서중학교
김제북 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체육, 미술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중학교 때 태권도 수업시간이 있었다.

코치의 한마디

경량급이어서 아주 부지런하게 뛰는 선수. 아직 기술이나 경기운 영부분은 다듬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일단 자신의 체급에서는 결국 몸무게 싸움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텝이 좋아서 타이밍을 잘 잡고 상대의 동작을 파악하면서 눈속임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양대승 코치)

PROFILE

악바리 승부근성

플라이급

- * 생년월일 : 1973. 12. 28
- * 출생지 : 서울 * 키 : 161cm
- * 학력 : 수색 초등학교
연서 중학교
인천 체육고등학교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5학년 때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좋아서
- * 주특기 : 오른발 받아차기, 뒷차기
-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7시간

서 미 라

<인천시청>

- * 주요 경기경력 :
'95 최종 선발전 1위
'95 전국 체전 1위
'97 1차 국가대표 2위
- * 즐겨 부르는 노래 : 찬송가
- * 좋아하는 음식 : 보신탕 빼고
모든 음식은 다 잘 먹음
- * 좋아하는 간식 : 초코렛
- * 재미있었던 만화 : 캔디, 영심이
-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
이것이 알고 싶다
- * 인상에 남는 책 : 잃어버린 너,
아버지
- * 즐겨입는 옷차림 : 캐주얼
- * 취미 : 편지쓰기, 음악감상
- * 남다른 특기 (태권도 기술 말고)
: 축구
-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원발 공격기술표 보완



감독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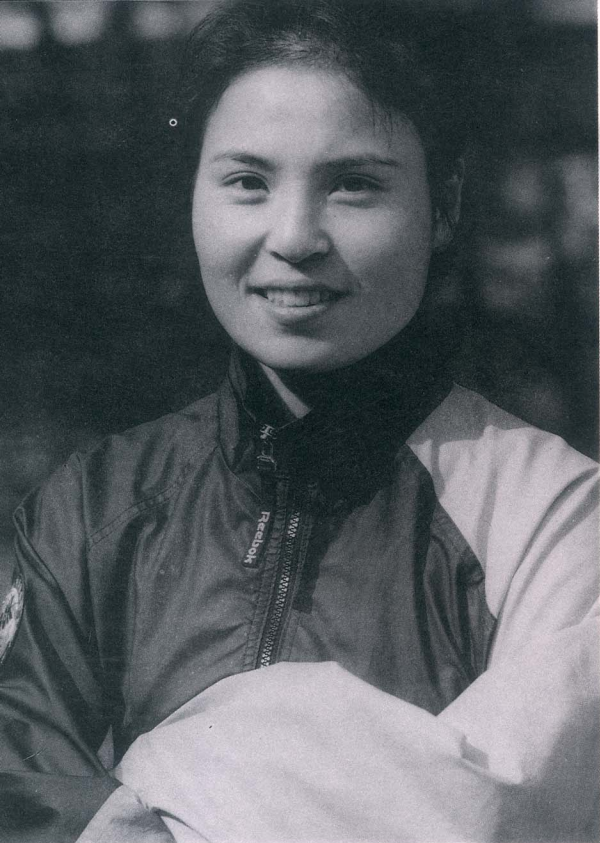
차분한 성격의 서미라는 남다른 승부근성으로 현재의 위치에 이른 선수.

95, 96년에 2, 3위만 기록해 우승전적이 없는 슬럼프기간도 있었다. 그러나 유심히 지켜본 본인의 결론은 '이 선수는 근성이 있어서 된다'는 것이었다.

96년 7월 인천시청팀에 입단한 서선수에게 자꾸 자극을 줬다. 힘들게 운동시켜도 끝까지 따라오려

는 자세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전년도 대표인 경희대 김보인 선수에게 늘 밀리던 서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싸웠고 이는 주효했다. 이번 대회는 선수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계기가 됐다. (임신자 감독)



여자 국가대표

신앙심 깊은 오뚜기

밴텀급

- *생년월일 : 1973. 4. 14
- *출생지 : 경기도 *키 : 160cm
- *학력 : 능곡초등학교
고양 여자중학교
고양 여자고등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지리과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체육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6살때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오빠 따라 다니다가

황 은 속

<인천시청>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 밴텀급
선수라면..... 모두 다
- *주요 경기경력 :
'92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1위
'96 최우수선수선발대회 1위
- *주특기 : 받아차기
- *좋아하는 음식 :
골고루 다
잘먹음(우동류)
- *좋아하는 간식 :
과일
- *재미있었던 만화 : 둘리, 하니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 :
드라마는 다
- *인상에 남는 책 : '안녕하세요,
성령님'
- *즐거워하는 오락임 : 캐주얼

감독의 한마디

인천시청팀의 주장이자 실업팀 3년차인 황선수는 대학 4학년때 체중감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중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체체실격으로 선수생활을 그만 둔다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기에 황선수를 우리팀으로 불렀다.

장단 멤버로 뛰게된 황선수는 여자임에도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체중감량에 신경을 쓰고 의

사의 처방을 받아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특별관리한 결과 이번 대회에서 힘있게 뛸 수 있었고, 결국 국가대표로까지 선발될 수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심성이 착하고 바른 황선수는 힘들고 어려울때는 굳은 신앙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줄 아는 그야말로 팀의 주장다운 선수다.

(임신자 감독)

PROFILE

4체급 국가대표

페더급

- * 생년월일 : 1974. 9. 16
- * 출생지 : 충남 * 키 : 168cm
- * 학력 : 광명남 초등학교
철산 여자중학교
광명상업 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1학년 때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경찰(형사)이 되고 싶어서,
하얀 도복이 멋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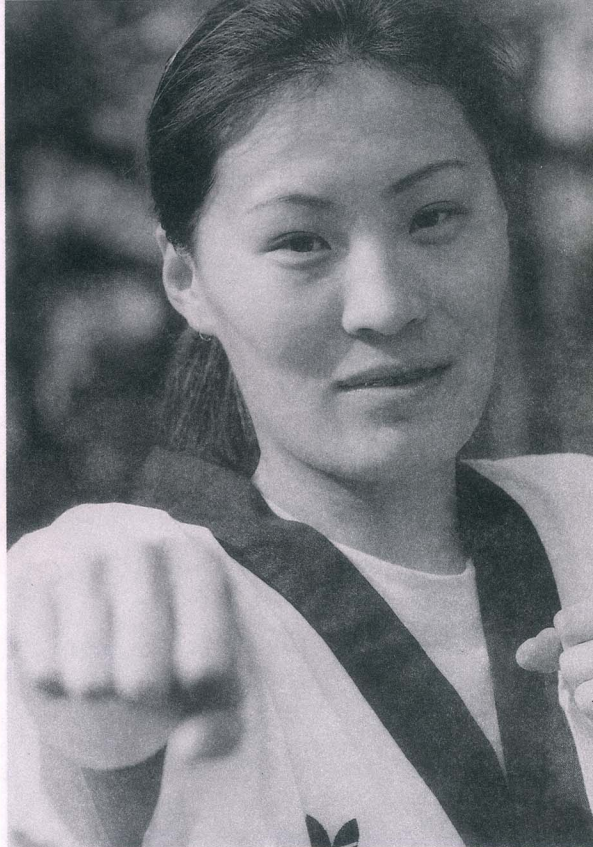
진 용 슢

<춘천시청>

- * 주특기 : 오른발 돌려차기
(공격), 빠른발 얼굴
- * 하루 훈련시간 : 4시간
- * 라이벌이 있다면 : 이승민
- * 주요 경기경력 :
'94 아시아 선수권 대회 1위
'96 세계 대학선수권 대회 3위
- * 좋아하는 가수 :
남자-김건모
여자-이선희
- * 즐겨 부르는 노래 :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배웅준, 여자-이승연
- * 좋아하는 음식 : 과일 사라다
- * 좋아하는 간식 : 초코렛
- * 재미있었던 만화 : 마징가젯트
-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
머나먼 나라



김건모



- * 인상에 남는 책 : 좁은문
- * 즐겨입는 옷차림 : 정장
- * 취미 : 롤러스케이팅
-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스케이트

-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많은 긴장감으로 인해 경기를
소극적으로 함.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싶음(꼭!!)

코치의 한마디

너무 여성스럽다. 체력과 기술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지만 때로 승부근성이 부족하다. 고등학교때부터 국가대표를 지냈고 신체적 성장에 따라 펀, 플라이, 밴텀, 페더급으로 계속 체급을 올

려왔는데 각 체급마다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기술이 뛰어나다. 앞돌려차기를 주특기로 하는 페더급에서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된다. 근성과 노련미를 보완한다면 부족할 것이 없는 선수가 될 것이다. (박계희 코치)



* 생년월일 : 1975. 1. 25

* 출생지 : 충북

* 키 : 163cm

* 학력 : 용담초등학교

구의중학교

리라공업고등학교

감독의 한마디

이 체급은 강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많이 안한 편인데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내줬다.

체력 때문에 늘 결정적일 때 밀리곤 했다. 이번 대회에서 1회전에서 이선희선수과 붙었는데 부담감도 없고 편하게 경기에 임한 결과 5:6으로 지던 상황에서 특기를

발휘하여 6:6 우세승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할때 자꾸 팀의 흐름에서 뒤처지길래 불러놓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서 극한 상황까지 얘기를 했더니 결국 분발해서 따라와줬다. 고마울뿐이다.

(임신자 감독)

여자 국가대표

춘추전국시대 평정

라이트급

성신여자대학교 체육학과

* 학상시절 좋아했던 과목 :

체육심리 및 실습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2학년 때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몸이 약해서...

* 특징 : 받아차기와 뒷주먹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 고양종고

이선희, 상명대 강해은 등

신 동 선

<인천시청>

모든 선수들(라이트와

페더급)

* 주요 경기경력 :

'94 최종 선발전 1위

'94 아시아 선수권대회 2위

'96 대학대표선발전 1위

* 좋아하는 가수 :

남자-이문세, 여자-이선희

* 즐겨 부르는 노래 : 트로트

* 좋아하는 음식 : 회, 떡고 모두 다

* 좋아하는 간식 : 햄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 뉴스

* 즐겨입는 옷차림 : 캐주얼

* 취미 : 여행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부족한 점은 상단과 스피드, 체력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여 세계대회에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싶다.

PROFILE

팀·국가 모두 간판

웰터급

- * 생년월일 : 1973. 4. 15
- * 출생지 : 인천 * 키 : 167cm
- * 학력 : 인천 산곡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인천 체육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2학년말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선생님의 권유
- * 주특기 : 빠른발, 뒷차기

조 향 미

<인천시청>

-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
- * 라이벌이 있다면 : 후배들 모두
- * 주요 경기경력 :
91 93, 94, 95, 96, 97년
대표선발 1위

'95 제5회 세계대회 1위

'96 아시아선수권 1위

- * 좋아하는 가수 :

여자-이소라

- * 좋아하는 음식 :

몸에 좋은

음식은 다(개도)

- * 즐겨입는 옷차림 :

청바지, 마이, 캐주얼

- * 좋아하는 간식 : 생크림, 초코렛

- * 재미있었던 만화 : 웨딩 피치

- * 인상에 남는 책 : '나는 소망
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 취미 : 만들기(벽걸이 등)



▲이 소라



-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성격이 급한 편이다. 경력이 쌓이면서 차분해지기는 했는데 아직 남아있다.

그랜드 슬램(전 대회 석권)을 이뤄보고 싶다. 이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만 달성하면 된다.

감독의 한마디

인천시청 팀의 간판스타다. 96 년엔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 했다.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장 점을 가진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력도 대단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한게임 한게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후배들 에게도 귀감이 되는 선수다.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은 성격이 조금 급하다는 것인데 경기 경험 이 쌓여가면서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임신자 감독)



여자 국가대표

4년 연속 태극마크

미들급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좋아서
- * 주특기 : 빠른발
- * 하루 훈련시간 : 4시간
- * 라이벌이 있다면 : 미들급 선수들
- * 주요 경기경력 :
 - '94 국가대표 선발전 1위
 - '94 아시아 선수권 1위
 - '95 국가대표 선발전 1위
 - '95 세계 선수권 대회 2위
 - '96 국가대표 선발전 2위
 - '97 국가대표 선수권 대회 1위

박 선 미

〈춘천시청〉

- * 좋아하는 가수 :
 - 남자-이승철, 여자-이소라
- * 즐겨 부르는 노래 : 잃어버린 너
- * 좋아하는 탤런트 :
 - 남자-최민수, 여자-이승연
- * 좋아하는 음식 :
 - 다 좋아함(개만 빼고)
- * 좋아하는 간식 : 과일
- * 재미있었던 만화 :
 - 베르사유의 장미
-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 쇼
- * 인상에 남는 책 : 남자의 향기
- * 즐겨입는 옷차림 : 캐주얼
- * 취미 : 음악감상
-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
 - 음식 만들기
-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 체력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됨.

* 생년월일 : 1972. 11. 22

* 출생지 : 서울 * 키 : 167cm

* 학력 : 숭인 초등학교
성신 여자중학교

인덕공업 고등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체육학과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3학년 때

코치의 한마디

투지와 기술이 뛰어나다. 문제는 체력, 이번 대표중 가장 고참인 나이이기 때문에 체력 보강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4년 내내 미들급에서 국가대표를 맡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후배 선수들과도 잘 어울리는

좋은 선배다. 성격이 좋아서 후배들도 잘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업 3년차인 박선수는 경기운영면에서도 뛰어나 외국 대회에서도 국내대회와 마찬가지로 역량 발휘에 기복이 없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박대희 코치)

PROFILE

공부도 운동도 1등

헤비급

- *생년월일 : 1975. 5. 4
- *출생지 : 서울 *키 : 175cm
- *학력 : 태릉초등학교
공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2학년 때
- *주특기 :
빠른발, 오른발 돌려차기
- *하루 훈련시간 : 5시간

정 명 속

<경희대>

- *라이벌이 있다면 :
상명대학교 김윤경
- *주요 경기경력 :
'93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95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96 아시아 대회 우승
'92, '93, '95, '96, '97
국가대표
- *좋아하는 가수 :
남자-전영록, 여자-이소라
- *좋아하는 탤런트 :
남자-배용준, 여자-송채환
- *좋아하는 음식 : 김치볶음밥
- *좋아하는 간식 : 파자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
체력훈련 및 기술보완
(다양한 기술) 원발, 앞발 및
빠른발, 세계대회 3연패를
목표로 열심히 하는 것.



코치의 한마디

체력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 물론 훈련도 남자와 똑같이 한다. 대학들어서 무패행진을 기록했던 이 선수는 96년 우수선수 대회때 상명대 선수에게 패해 예선에서 탈락하고마는 수모를 겪은 후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 부상 중이어서 코치로서 기권을 권유했지만 본인이 굳이 뛰었던 경기였다. 경기 후 면담때 정선수는 최초의 실패를 극복하고 오히려 흘

기분한 마음으로 뛸 수 있게 됐으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20일 후에있는 대학연맹대회에서 우승했다.

학교생활에도 충실해서 학점관리를 아주 잘한다. 허리디스크와 무릎 인대가 늘어나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신력과 자존심으로 강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정명숙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이경호 코치)



카이로 월드컵 **남여** 종합우승

남자헤비급 김제경, 그랜드 슬램 이룩

97년도 월드컵 태권도대회가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다.

한국은 전북협회 유기대 회장을 단장으로 임원 5명과 남녀 국가대표 1진 16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했다.

한국은 남자부와 여자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해 지난해 남자부가 월드컵 대회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놓쳤던 것을 깨닫기 설욕했다.

남자부는 8체급중 5체급을 석권해 금 5개를 싹쓸었고, 여자부도 대만과 스페인등의 강호를 맞아 고전했지만 금 2, 은 1, 동 2로 월드컵 대회출전 사상 첫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중주국의 체면을 세웠다.

물론 이제까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메달획득의 기회를 부여해서 태권도붐을 일으킨다는 목적으로 월드컵 대회에 국가대표 2진을 참가시켜왔지만, 지난해 남자부 2위, 여자부 3위는 태권도 중주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국가 대표 1진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경기가 벌어진 카이로에서는 TV중계와 언론사의 집중보도가 계속됨으로써 태권도붐이 조성됐고, 경기가 치러지는 3일 내내 2,500여 명의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보내 경기장을 열기로 달아올랐다. 또 500여 명의 교민이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선수들이 득점할 때마다 열렬히 응원했다.

남자부: 8체급중 5체급 싸늘이

여자부: 월드컵 사상 첫 종합우승

한편으로 유럽과 미주에서 국제심판을 대거 기용하여 총 38명의 심판중 한국심판은 3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 견제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선수단 명단

단장 : 유기대 (전북협회 회장)

감독 : 박덕규 (기심회 지도위원)

주무 : 이봉 (협회 기획부장)

코치(남) : 양대승

코치(여) : 임신자

선수 : (남자부)핀-김병태, 플라이-최만용

밴텀-황병련, 페더-신준식,

라이트-심기선, 웰터-김경훈,

미들-이동완, 헤비-김제경

(여자부)핀-박정희, 플라이-서미라,

밴텀-황은숙, 페더-진용순,

라이트-신동선, 웰터-조향미,

미들-박선미, 헤비-정명숙



월드컵 역대 전적

회수	연도	개최지	참가 국수	성 적	
1회	86	미국, 콜로라도	16	종합우승	
2회	87	핀란드, 헬싱키	17	종합우승	금5, 은2
3회	89	이집트, 카이로	16	종합우승	금4, 은1, 동2
4회	90	스페인, 바르셀로나	16	종합우승	금5, 동3
5회	91	유고, 자그레브	19	남 : 종합우승 여 : 종합 3위	남 : 금6 여 : 금2, 은1, 동2
6회	94	케이만 아일 랜드, 조지타운	22	남 : 종합우승 여 : 종합 9위	남 : 금4, 은1 여 : 은1
7회	96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20	남 : 2위 여 : 3위	남 : 금3, 은1 여 : 금1, 은1
8회	97	이집트, 카이로	22	남 : 종합우승 여 : 종합우승	남 : 금5, 동1 여 : 금2, 은1, 동2

'97 월드컵 입상자

체 급	성 명		비 고
핀	김병태	용인대	금
플라이	최만용	한국체대	금
라이트	심기선	경희대	금
웰 터	김경훈	한국체대	금
미 들	이동완	한국체대	동
헤 비	김제경	상무	금
핀	박정희	한국체대	동
플라이	서미라	인천시청	금
밴 텀	황은숙	인천시청	동
웰 터	조향미	인천시청	은
헤 비	정명숙	경희대	금

* 5회 : 여자=1위 대만, 2위 스페인

* 6회 : 여자=1위 대만, 2위 스페인

* 7회 : 남자=1위 멕시코, 3위 이집트

여자=1위 대만, 2위 스페인

* 8회 : 남자=2위 이란

여자=2위 대만

북한 태권도의 실상

「결사옹위!」「총폭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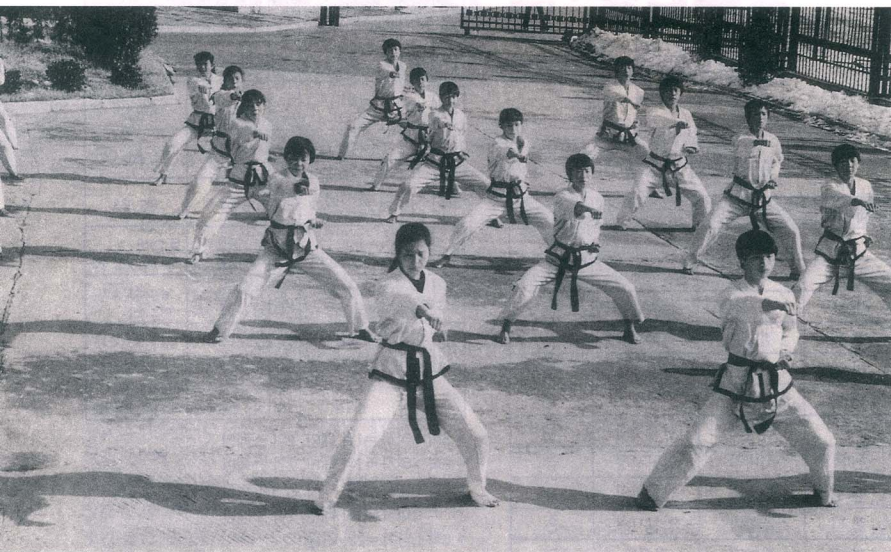


낙후된 경제구조 탓에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체제붕괴의 위기마저 전해지는 북한은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개방이나 시장경제의 도입 등 기본적인 정책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이경명 사무차장은 『경제난이 반영되고 있는 탓인지 친북한계인 ITF(국제태권도연맹)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북한 태권도의 실상이란 어떤 것일까. 관계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태권도의 오늘을 살펴본다.

곽 영 완 (서울신문 체육부 기자)



▲북한 태권도 클럽 가운데 명문의 하나로 꼽히는 남포 태권도클럽에는 방과후 각급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ITF 태권도를 익힌다. 도복자락에 테를 두른 것이 눈길을 끈다.

태권도 기합으로

북한에서는 체육이 전주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통일 시키고 체제에 순응하거나 기여토록 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공산주의의 의도에 맞도록 규격화된 조직인을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기도 하며 바로 이 점에서 북한 체육의 골간은 이른바 국방체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난 59년 2월 내각결정 제15호에서 체육정책의 기초로 「전체주민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체육을 대중화 하는 동시에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발전시키도록 한

다」고 결정한 후 계속 이를 견지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국방체육에 대중체육의 외피를 덧씌우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그중 하나가 태권도 보급이다.

태권도에 대해 「고구려시기부터 전해온 격술인 수박치기를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 유산의 귀중한 재부로서 인민의 커다란 자량과 긍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태권도는 10~1급, 1~9단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으며 기본동작(3천 2백여가지)을 비롯, 틀·맞서기·위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기방식 가라데와 비슷

ITF 태권도의 실체는?

1966년에 최홍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ITF(국제태권도 연맹) 태권도는 가라데의 기술이나 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1968년 홍콩에서 열렸던 ITF 주최의 제1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기방식과 규칙도 가라데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태권도의 이론과 기술을 우리 고유의 것으로 정비, 통일 시키고 경기규칙과 운영방법 개선을 추진해 온 대한태권도협회는 해외 수련생의 심사 및 단증 발급권한

과 경기규칙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60년대말 ITF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970년대초부터 태권도의 새로운 세계화전략으로 무술이 아닌 스포츠로서 경기태권의 세계보급에 힘써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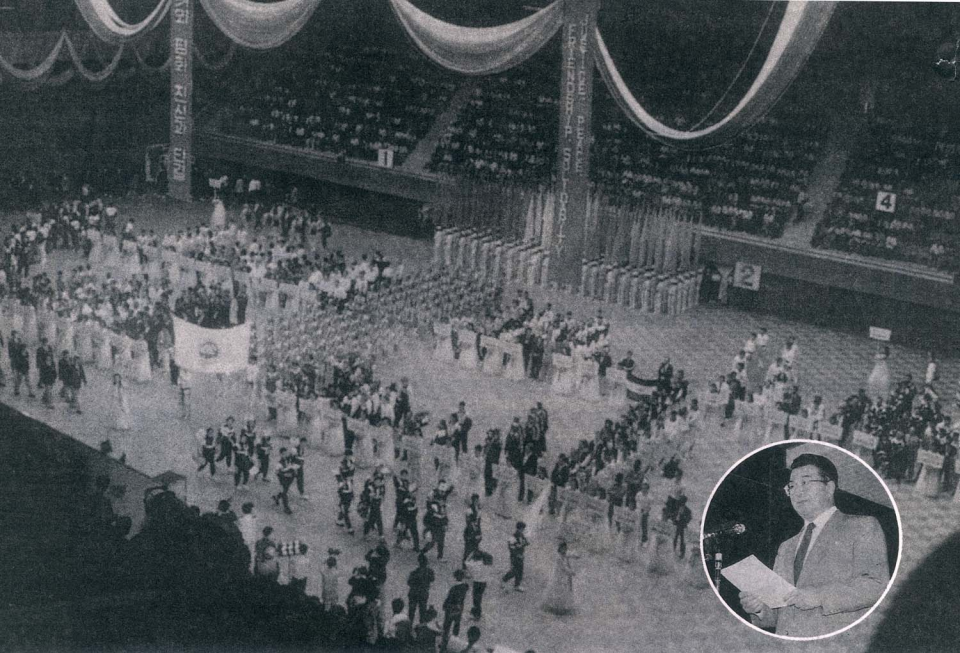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 주도로 1960년대초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한 경기태권은 ITF 태권도와는 달리 일본 가라데와 다른 유형임을 온 세계에 밝힐 수 있게됐다.

경기태권은 한국의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와 다른 것이며 스포츠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발전된 것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 주었다.

ITF 태권도는 최홍회가 씨를 뿌린 동남아일부 등지에 보급이 됐으나 일본 가라데와 뚜렷한 구별없이 구미인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인 반면 1973년 대한태권도협회는 5월에 서울서 제1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WTF(세계태권도연맹)를 탄생시켜 본격적인 세계화의 길을 달리게 됐다.

결국 합리적인 스포츠화를 이룩하고 한국 고유무도의 특징을 살린 WTF 태권도가 온 세계의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김광성·김경지가 함께 지은 「한국태권도사」에서)



▲ 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회 ITF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의 개회식에는 연형묵총리(원내)가 참석해서 축하연설을 했다.

우리의 품새와 같은 틀은 적개는 6~7개, 많게는 1백가지 기본동작을 묶은 것으로 모두 24종이 있으며 승단시는 습득해야 하는 틀의 숫자가 늘어난다. 가장 낮은 급인 10급은 기본동작을, 9급에서 1급까지는 1종류의 틀만을 습득하면 되지만 1단은 12종, 2단은 15종, 3단은 18종, 4단은 21종, 5단은 23종, 6단은 24종 모두를 습득해야 한다.

태권을 뜻하는 맞서기는 한국과 같이 「약속하기」, 「자유맞서기」로 나뉘며 위력은 주먹, 칼, 발뒤축 등으로 널판지, 벽돌, 기왓장을 격파하는 일종의 격파같은 것이다.

북한은 지난 92년 9월 국제태권도 연맹(ITF·총재 최홍희) 주최로 평양에서 열린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김일성이 「노인들도 태권도를 하면 100세 이상 산다」고 강조하며 태권도 보급을 독려한 이후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익히고 있다. 이른바 건강태권도다.

93년 11월 「조선태권도위원회」가 만든 건강태권도는 50개의 기본동작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악선율에 맞춰 진행된다. 그러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많아 95년 8월 어린이용과 노인용을 새로 만들어 냈다.

유치원반, 높은반 어린이부터 인민학교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어린이용은 크게 찌르기·막기·뛰기·서기 등을 기본으로 해 106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분 19초 정도 걸린다. 노인용은 24개 기본틀(품새) 가운데서 가려뽑은 70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한 기재나 장소에 구애됨없이 여러사람이 함께 모여 할 수도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운동시간은 2분 정도로 종전의 건강태권도에 비해 1분정도 짧게 돼 있다.

북한의 태권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태권도연맹(ITF)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 84년초 우리측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 김윤용)이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추진했을 때 단일기구를 제언, 눈길을 끈 바 있는 ITF는 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을 자주 오고간 한국군 출신의 친북인사 최홍희가 조직한 기구다. 최홍희는 북한에 현대식 태권도 보급을 본격화시킨 인물이다.

특집 2 북한 태권도의 실상은?

함북 길주 태생인 그는 한국에서 사단장 재직시절 부하 태권도인을 통해 태권도를 익힌 뒤 대한태권도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태권도사범들의 초기 해외진출을 적극 주도했다.

이 때문에 그가 한국이 주도한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항하는 친북단체인 국제태권도연맹을 조직하자 상당수 해외사범들이 이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85개 회원국을 거느리던 국제태권도연맹은 친북노선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포사범들이 대부분 이탈했고, 동구권국가들도 대거 탈퇴, 현재는 회원국수가 많이 줄어들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태권도를 대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태권



▲ 92년 8월 평양시 청춘거리에 세워진 북한태권도의 상징인 「태권도 전당」

도연맹을 앞세워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주도하고 있다.

「북으로 간 장군」 최홍희

조국도 잃고 제자도 잃어

캐나다에 이주한 최홍희에게 1980년 북한 부주석 김일의 이름으로 「통일문제를 의논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당시 해외의 반한(反韓)인사 10명에게 보내진 편지였다.

이를 계기로 최홍희는 같은해 아들 중화와 함께 15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북한에 들어가 태권도를 보급했다.

최홍희는 언제나 「내가 태권도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태권도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태권도는 오랜 옛날부터 있어 온 무술이다. 그는 북한과 공산권에 태권도를 보급했으나 그 대신 많은 한국인 제자를 잃었다. 그전

부터 해외에서 반정부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왔던 태권도인들은 서슴없이 그와 결별을 선언했다.

한번은 최홍희가 시카고에서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태권도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시카고에



는 남태회가 있어 도와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하자 남태회의 제자인 백유천을 시켜 대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선수도 몇명 오지 않았고 대회장 앞에 데모대가 몰려왔기 때문에 대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미시사가라는 소도시에서 자신은 ITF 총재로 아들은 사무국장으로 태권도를 하며 살고 있다.(이호성이 지은 「한국무술 미래록 정복하다」에서)

◀ 한국군 장성출신이면서도 북한을 오가며 ITF(국제태권도연맹)를 친북한계 단체로 만들어 버린 최홍희가 지난 92년 평양에서의 제8회 ITF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74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됐고, 2회는 78년 9월 미국 오클라호마, 3회는 81년 8월 아르헨티나 레시스텐사, 4회는 84년 4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열렸다.

5회 대회는 87년 5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으며 북한은 이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6회 88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7회 90년 8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이어 92년 9월 8회대회때 비로써 평양에서 개최됐다.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서 67개 친북국가들을 초청한 이 대회는 92년 8월 평양시 청춘거리에 세워진 「태권도전당」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였다. 이곳

▲지구력강화를 위해 로드워크를 실시하고 있는 남포태권도 클럽 회원들.

은 부지면적 6만여㎡, 길이 102m, 너비 99m, 높이 32.5m로 2천4백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북한 태권도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가 국방체육의 대명사로 보급되고 있지만 군사 훈련에도 적극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정신교육과 신체단련 차원에서 태권도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군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전투력 강화의 목적에서 무술을 가르친다면 경기 태권도보다는 실전 격투기가 더 유용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우리 군의 경우 특공무술이라는 무술을 개발, 개인 전투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군의 교육자료에도 태권도보다는 「격술」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격술」이 우리군의 특공무술과 같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대규모 군행사때마다 어김없이 태권도 시범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신체단련 훈련에 태권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도 태권도는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포시에서 「정일동상·장자산상 전국청소년학생태권도경기



◀남포태권도클럽 마당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북한의 태권도선수들. 이 클럽은 태권도훈련에 필요한 각종기구를 갖추고 있고 엄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대회」를 개최했는데 각 도와 시·군예선에서 우승한 고등중학교 인민학교학생 5백여명이 참가, 남녀들(품새) 경기와 특기(겨루기) 경기가 승자전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던 전국 청소년 학생 태권도대회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에 앞서 이 해 10월 북한은 김정일 혁명사적인 장자산의 이름을 따



▲소매에 줄무늬가 들어있는 도복차림의 지도자가 제자에게 앞차기 할때의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

「전국인민학교 체육경기대회」의 명칭을 「장자산상 체육경기대회」로 변경했었다.

한편 북한의 군을 포함한 각급 태권도전문화소조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소조원들에게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는 의미에서 격파시 「결사옹위」, 「총폭탄」이라는 기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기합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신, 효자로 8백만 총폭탄대오의 맨 앞장에 서겠다는 소조원들의 불타는 결의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란봉컵 대회에 태권도 통신강좌도

일본속의 친 북한계 ITF태권도

친 북한계인 ITF태권도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모란봉컵대회 등 경기행사를 갖고 태권도 통신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자칫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WTF태권도와 혼동될 우려를 빚어내고 있다.

그들도 역시 태권도라는 이름을 크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6 모란봉컵대회 해비급 우승자를 내세운 ITF태권도 통신강좌와 ITF태권도 입문 비디오의 광고

창립된지 14년이 되는 일본 국제태권도협회(JITF)는 4번째 일본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모란봉 태권도 도장은 지난해에도 모란봉컵 태권도대회를 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월간 「가라테도」의 별책으로 JITF는 태권도의 기술입문서를 발간했고 모란봉 태권도 도장은 태권도 입문 비디오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ITF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인 WTF태권도로 잘못 받아들일지 모를 일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WTF태권도의 위세에 눌려 세력권이 좁아져 가고 있는 ITF가 세계 각국 격투기를 마구 받아 들이고 있는 일본홍행시장에서 정통 태권도 아닌 구경거리 무술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하 권 익 박사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의학 과장

스포츠의학의 전문가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중 섭 박사

삼성 서울병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소아 골격의 특 징 2

인대가 뼈보다 강해

지난번에는 주로 소아기 골격의 특징을 뼈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소아 골격중 관절과 근육 및 인대(힘줄)의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소아기의 근육 및 인대의 특징은 어른과 다른 몇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른과 다른 어린이만의 스포츠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첫번째로 소아의 인대나 관절은, 어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뼈보다 강하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뼈보다는 인대가 장력(당기는 힘) 등의 외력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관절주의의 심한 손상을 당한 경우에는, 어른 같으면 인대가 끊어져서 탈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소아들은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관절이 탈골되지 않고 그 주위의 뼈가 부러진다. 특히 관절 주위에는 성장판이 존재하고 이 성장판은 다른 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잘 부러지게 된다.

또한 드물게 인대가 손상을 받더라도 어린이의 인대는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른에 비하여 빨리 회복된다.

관절은 부드럽고 연해

둘째, 어린이의 관절은 어른에 비하여 매우 부드럽고 연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어린이도 팔꿈치나 손목, 무릎, 엉덩이 등 몸의 대부분의 관절이 어른에 비하여 운동범위가 크고 많이 꺾혀질 수 있으며, 어떤 선천성 질병의 경우는 보통의 어린이 보다 훨씬 심하게 관절이 꺾혀져 서커스단이나 할 수 있는 몸동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린이 관절의 부드러움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굳어지게 된다. 관절이 부드럽고 연하면 스포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활동에 이로운 점이 많다.

운동많이 한 날 「성장 통」- 휴식하면 나아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과도한 관절의 부드러움으로 팔꿈치에서 스포츠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팔을 뻗히고 넘어진 어린이는 팔꿈치의 바로 윗부분의 뼈가 부러지는 골절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에서는 이러한 골절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어린이 관절운동 상태를 운동전에 관찰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운동을 함으로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오스군씨 병 저절로 나아

셋째, 성장기 어린이의 관절은 성장함에 따라서 나이와 부위에 따른 독특한 손상이 빈발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기(대개 중학교 연령)의 운동을 많이 즐기는 학생이 무릎 앞부위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릎앞의 힘줄이 집중적으로 당김을 당하는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이 힘줄에 붙어있는 성장판에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오스군씨병”이라는 것으로 특수한 치료없이 무릎에 무리가 도는 운동량을 줄이고, 안정, 물리치료 등과 더불어 성장이 완료되면 저절로 치료되는 병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뒷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어린이는 아킬레스인대가 붙는 자리의 성장판 주위의 염증에 의한 것으로서 안정하고 운동을 줄이면 저절로 낫는다. 이와는 달리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팔꿈치가 많이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병원을 찾는 어린이 야구선수의 경우는 팔꿈치 관절의 과도한 압력에 의한 성장판의 무혈성괴사(혈류가 차단되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뼈의 조직이 상하고 변형이 생기는 병)에 빠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이 경우는 무리한 송구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장판이 부분적으로 없어질 연령에만 발생하는 골절이 있는데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

년기 학생이 축구나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뒤틀리는 손상을 받은 경우에 성장판이 반쯤 남아있는 발목의 중간부위의 성장판이 힘줄에 물려서 떨어져 발생하는 골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긋난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증에 시달린다.

넷째, 어린이들은,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한 날 저녁이나 밤부터 심하게 관절이 아프다고 우는 경우가 있



▲태권도는 물론 모든 스포츠의 지도자들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발목에 도움이 되도록 스포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다. 이들 어린이들은 통증이 너무 심하여 부모들이 놀래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어린이를 진찰,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우리 의사들은 통상 “성장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한 날의 저녁 이후에 다리부분을 아파하고, 그 다음날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잘 뛰여노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장통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후유증없이 수일내에 저절로 사라진다.

성장통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는 진행중이며,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아마도 뼈, 신경, 근육 등 여러가지 조직의 성장상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원인인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이러한 “성장통”도 어린이 관절의 고유한 특징중 하나이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많은 독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발자취를 이번호부터 연재한다.

지난 73년 WTF(세계태권도연맹)결과와 함께 첫 대회를 가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어느덧 24년의 나이테를 기록하게 됐고, 오는 10월 홍콩에서 남자는 제 13회대회 여자는 제 6회대회를 갖게 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온 세계에 태권도를 널리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그동안 술한 영웅과 화제를 낳았다.

첫 대회부터 줄곧 세계선수권의 발자취를 지켜 보아 온 이경명 세계태권도연맹차장은 생생한 필치로 지난날의 드라마를 재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차장

올림픽을 향한 힘찬 첫걸음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세계대회, 그 새 장을 열며

한국의 고유전통무예에서 출발한 태권도가 1950년대부터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사범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으로 1971년 1월에 취임한 김운용회장은 그의 취임사에서 태권도종주국의 진면모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장으로써 국기원의 건립과 세계대회개최를 공약 사업으로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후 1백 30만 태권도인의 요람이요, 또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인 국기원이 1971년 11월 19일 착공식을 하였고, 그 이듬해인 1972년 11월 30일에 준공하였다.

현재 국기원은 2천평대지에서 연건평 1,249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체육관이며, 총공사비가 당시 돈 1억 5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이의 완공은 태권도 반만년의 금자탑이라 하겠다.

이에 앞서 1971년 4월 15일자 발간된 대한태권도협회 계간 태권도 창간호를 보면 김회장의 야심찬 태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컨도비전을 읽을 수 있다. 창간사에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 한국은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의연하자면 종주국으로서의 진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태권도 협회는 새로운 면모를

1명씩 출전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2분 3회전이며, 경기방식은 패자부활전이 있는 토너먼트방식이었다. 그리고 대회기간은 5월 25일~27일 3일간이며, 장소는 국기원이다.

초청대상국은 20여개국정도로 정하고 우선 참가국가수보다는 지역적인 고려에 따라 미국은 동부 서부 중부로 나누어 3팀을 배려했다.

대회초청장은 1월 16일자로 발송했는데 서독의 경

▶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은 그동안 태권도가 온세계에 퍼지고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도록 그 기능을 다해왔다.



갖추기 위하여 숙원 해결의 계획을 수립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태권도센터의 건립이며...”으로 이어진다.

그 이듬해 대한태권도협회회는 1973년 1월 9일 세계대회요강을 확장,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회요강의 요지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고 단체전 1팀의 구성은 경량급(63kg이하) 3명, 중량급(64kg이상) 2명으로 정선수 5명, 후보 1명 모두 6명이다. 개인전은 역시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해서 각

우 2팀이 참가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하였다.

이 세계대회를 계기로 김회장은 세계태권도연맹을 결성할 방침을 세우고 세계태권정관을 제정하여 경기 규칙, 단증문제, 국제심판 등을 주로 다루게 되며, 사무국은 한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규모는 참가국 17개국 20개팀 161명의 선수였다. 선수단을 인솔한 임원은 대부분 한인 사범일색이었다. 각국팀을 인솔해 참가한 한인사범을 보면 김대현, 황작, 민경호, 전인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문, 안예모, 김일희, 강명구, 현숙 셀(이상 미국), 서윤남, 이종규, 신부영(이상 서독), 김남석(우간다), 이관영(프랑스), 문대원(멕시코), 노효영, 김기동(이상 자유중국), 이성수(싱가포르), 강정엽(재일동포), 양우엽(말레이시아), 최정혁, 김시종(이상 크메르), 이경명(오스트리아), 박원하(보르네오) 등이 다.

이 가운데 지금은 교수, 사업자 등 전직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해외에서 태권도성직자로서 묵묵히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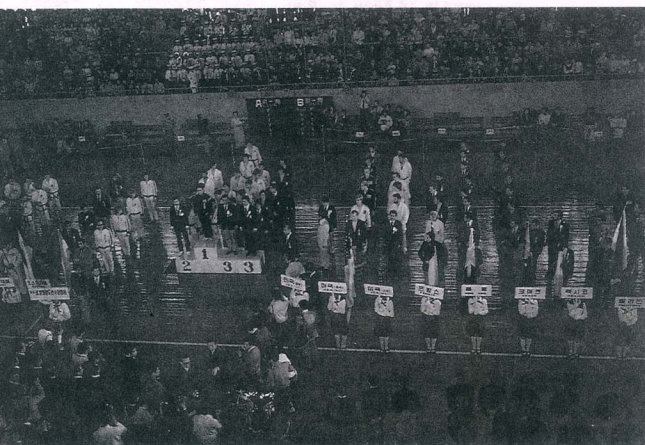
선수단의 이모저모

경기전날 대표자회의에서 서독의 2팀과 말레이시아와 사바간의 문제가 제기되어 한동안 분위기가 고

막스씨(유림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세계연맹 부회장역임)는 완강히 주장을 폈다. 그러나 조직위측의 중재로 뮌헨에서 출전한 팀을 서베를린팀 이름으로 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을 보았고, 개인전에 한해 출전을 제한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바도 개인전 출전 조건으로 결말되었다. 당시 서독협회는 사무국이 뮌헨에 소재한 관계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만도 했던 것이었다.

대표자회의는 당시 대회집행위원장직을 맡은 이중우씨가 회의를 주관했고, 25/26일 양일간은 단체전, 27일은 개인전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 참가국은 미국 중부, 동부, 서부 3팀, 오스트리아, 보르네오, 자유중국, 프랑스, 서독, 서베를린팀, 홍콩, 아이보리코스트, 크메르, 말레이시아, 사바,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우간다, 재일동포, 한국이었다.



◀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각국선수단들이 국기원도장에 입장, 정정 당당히 겨룰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됐다. 서독 국가대표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유는 뮌헨에 체류하고 있는 서윤남사범이 인솔한 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출전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시 협회장이며 단장이었던 하인츠

대부분의 선수단이 한인사범에 의해 인솔됐는데 1인 3역을 맡고 단신으로 출전한 선수는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온 아르센 지리용(27세 초단)선수였다. 이 선수는 수도 아비장의 석유회사에 다니는 설계사였다.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고 미국 동부팀 감독으로 참가한 한국여성 현수셀, 남편인 에드워드 B 셀은 단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선수로 참가, 가족팀의 성격을 띠었다. 이 팀은 우승을 목표로 현지적응 훈련차 1개월전에 도착, 강훈을 하였다.

그 어느팀보다도 한국팀은 이 역사적 첫 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한달간 국기원에서 하루 8시간씩 강훈을 하였고, 특히 선수의 신장을 170센티미터 이상 3단이 하로 제한해 선발했다.

훈련은 외국팀의 강한 체력에 대비하여 기술의 스

- 팀 : 1위 한국
2위 미국
3위 멕시코, 자유중국
- 개인전 :
라이트급 : 1위 이기형(한국)
2위 사베로 아만도(서독)
3위 조 헤이스(미국)
게오르그 카렌베르그(서독)
- 헤비급 : 1위 김정태(한국)
2위 마이크 워런(미국)
3위 일론드 잭(미국)
라이몬드(미국)



◀제1회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의 김운용 총재

피드백에 역점을 두고 집중훈련을 하였다. 한국팀의 목표는 단체, 개인전 모두 3개의 타이틀을 석권하겠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단체전에서는 중중국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이겨야겠다는 각오였다. 한국대표선수단은 5월 19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결단식을 가졌고 단장 이교윤, 감독 이문호, 코치 이형로, 선수 이기형(육군), 강의성(성대), 나종열(해병대) 이상 3명 경량급, 그리고 김철환(동양공전), 최정도(해병대), 김정태(해병대) 이상 중량급, 모두 6명으로 구성됐고 팀의 주장은 김정태선수였다.

명암이 엇갈린 열전 3일

경기의 전세는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한국선수는 홈그라운드인 이점과 4천명에 이르는 열화같은 관중의 성원에 힘입어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예상했던대로 단체전에서 한국은 서독, 미국 동부팀, 자유중국을 차례로 물리친 후 최종 결승전에서 미국 동부팀을 3:1 1무승부로 물리치고 첫 패권을 차지하였다. 한국은 홍콩팀을 맞아 단체전에서 5:0으로 가볍게 압승했다. 강의성과 김철환 두 선수는 각각 KO승을 거둬 관중들에게 통쾌한 감동을 안겨 줬다. 홍콩은 한국과의 대전에서 선수 5명 전원이 부상을 입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전 경량급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이기형은 카렌베르그(서베를린)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 역시 아만도 사베로(서독)를 만나 승리하였는데 아만도의 다양한 고난도 기술표기에 관중은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개인전 경량급에서 보인 조 헤이스(미 동부)와 아만도(서독)와의 시합에서 보인 모범적인 태권도의 예의, 다양한 고난도기술구사로 인해 저것이 절묘한 태권도 기술이구나 하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조 헤이스선수는 미국 브래블트 무도지에 소개된 바 있고 아만도는 뮌헨대 체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돌려차기와 뛰어차기가 특기로 두 선수의 시합은 수작품이라는 찬사였다.

개인전 경량급에서 서독은 아마도선수가 2위, 그리고 카렌베르그(서베를린팀) 선수는 3위를 차지하는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영광을 안겨 주었는데 협회에서는 카렌베르그의 결과
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전 그 당
사자가 인정받지 못했던 기록이 거의 사반세기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현재 그는 주협회 임원으로서 태권
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팀 주장으로 중량급 개인전에 출전한 김정태는
준결승전에서 엘버트(미국서부) 선수를 맞아 주먹공

격과 앞차기기술로 승리하였고, 결승전에서 워런(미
국 동부)과의 대전에서는 앞서 경기에서 원팔부상으
로 인해 무척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그의 특유의 침
착한 경기운영과 상대의 공격에 받아차기로 응수, 역
시 승리를 거뒀다.

현재 그 당시 한국 대표팀의 이문호감독은 프랑스
에서, 이기형선수는 페루에서, 나종열선수는 과타르



◀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17개국 20개팀 161명의 선수들이 참
가해 탄생의 첫울음을 터뜨렸다.



◀ 태권도사에 길이 남을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격전의 연속이
었다.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 시범을 보이기 위해 정렬한 어린이태권도 선수들.



에서 그리고 김정태선수는 2000시드니 올림픽이 개최 될 그 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알찬 대회의 열매

이 대회기간에 특기할 경기 기술을 분석해 보면 한국선수들은 주로 앞차기, 옆차기, 주먹공격, 뒤차기 등 순으로 득점 빈도가 높았고, 외국선수들은 뛰어 돌려차기, 뛰어 뒤후리기, 옆차기 등 고난도기술구사로 인해 득점연결이 시간차로 어려웠다. 처음으로 입어보는 호구에 대한 부자연스런 착용감, 미숙한 경기 운영 등으로 거뒀아 했던 외국선수들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점은 태권도종주국 한국선수에 대한 두려움이 었다.

이같은 심리적 부담으로 해서 26명 부상, KO패, 기권 등 예기치 않은 진기록을 남겼다.

이 대회를 통해 국제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정착하기 위해 보완,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서 :

- 국가대표팀간의 경쟁이 돼야 한다는 점
- 1:1 개인간의 투기종목으로서 경기화를 위해 합리적, 구체적인 체급조정의 필요성
- 강한 가격에 의한 신체부위상 높은 부상율에 대비

한 장비개발문제

- 공정한 심판판정을 위한 경기규칙개선 등 대한태권도협회가 대회개최의 의의를 둔 점은 :
- 태권도의 국기화에서 다시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민족 고유의 무예 및 국위선양의 무도로서 세계 스포츠로 태권도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
- 우리가 만든 규칙으로 우리가 지은 국기원에서 우리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태권도의 전통을 세우게 된 것.
- 인종과 언어와 풍속이 다른 세계의 젊은 이들이 흰색 도복으로 단장, 국기원(중앙도장)에서 예의와 절도의 조화를 이룬 가운데 펼쳐져 세계스포츠로서 비상 날개짓을 펴게 된 것.
- 세계태권도 구심적 역할로써 보여준 종주국에 대한 신뢰도 등

세계태권도인의 중앙도장으로서 선 보인 열전 3일 간에 걸친 제1회세계대회의 역사적 대장정의 막을 내리며 “태권도의 세계화, 국제스포츠로서의 조직화”를 위해 이 대회에 참가한 전태권도인의 의지가 승화,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이 창립되었다.

세계 태권도연맹 소식

영향력있는 국제스포츠인사 김운용총재 3위로 뽑혀

97년 1월 10일자 독일 Sport Intern지에 따르면 96년도 국제 스포츠인사 서열에서 김총재는 IOC사마란치위원장, 미국NBA스포츠의 딕 에버솔(Dick Ebersol) 회장의 뒤를 이어 프리모 네비올로(Primo Nebiolo) 국제아마추어육상연맹회장(IOC위원장 하계올림픽 국제스포츠연맹 회장 겸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편 김총재는 대륙별 스포츠인사명단에서는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

'97 월드컵 태권도 참가국 명단

97년 3월 6~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월드컵 태권도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들 및 참가팀(남/녀)

■ 아시아 : 호주/한국(이상 남녀팀), 이란/필리핀(이상 남자팀), 대만(여자팀)

■ 유럽 : 독일/이탈리아/스페인(이상 남녀팀), 덴마크/프랑스(이상 남자팀), 크로아티아/그리스/러시아/영국(이상 여자팀)

■ 팬암 : 캐나다/멕시코/미국(이상 남녀팀), 브라질(남자팀)

■ 아프리카 : 이집트/레소토(이상 남녀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자팀), 모로코(여자팀)

멕시코와 남아공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유치 희망

멕시코 태권도협회(회장:헤수스 모레노 라모스-Jesus Moreno Ramos)가 98년 7월 17~20일 제2회 세계주니어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유치신청서를 세계태권도 연맹에 제출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권도협회(회장:골프리 모코보토-Godfrey Mokoboto)도 이 대회 유치의사를 밝힌바 있다.

아시아태권도연맹 시범단 동남아 순회

15명으로 구성된 아시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97년 1월 23일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을 돌며 순회시범을 하고 2월 6일 귀국.

회원국동정

■ 레바논올림픽위원회는 일시정지시켰던 레바논 태권도 협회의 회원자격을 96년 12월 18일 재승인 했다. 회장은 모하마드 칼릴리(Mohammad Khalili) 전임회장 그대로이며 사무총장은 Paul Bourjeily

■ 불가리아태권도협회(회장:발레리 나이데노프-Valery Naidenov) :

P. O. Box 63, 1113 Sofia, Bulgaria

전화 겸 팩스 : 359 2 441 893 / 359 2 803 791

■ 사이프러스아마추어 유도 가라테 태권도협회 : 협회 총재무겸 국제유도연맹과 유럽유도연맹 총재무였던 안드레아스 카치니오리데스(Andreas Katsinioides)씨가 1월11일 55세로 사망.

김영기 씨 기술위원장에

■ 스페인태권도협회는 1월 20일 협회 새 집행부 명단 발표 :

회장 : 마누엘 콜메네로 피르비다(Manuel Colmenero Firvida)

사무총장 : 헤수스 드 라 토레 마르티네즈(Jesus de la Torre Martinez)-유임

기술위원장 : 김영기 사범

한편 신임회장과 김영기기술위원장이 1월 29일 세계연맹 방문.

■ 그리스태권도협회의 아타나시오스 프라갈로스(Atanasios Pragalos)회장이 그리스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 연방이 분리되고 난 후 지금까지 국제전화 국가번호 42를 공동으로 사용해오던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NEWS

2월 28일부터 체코는 420, 슬로바키아는 421로 변경됐다.

■ 리트비아태권도협회 :

Matisa str, 16, Riga

LV-1001, Latvia

전화 : 371 7 312090 / 371 9 205498

팩스 : 371 7 548049

■ 포르투갈태권도협회

Praca Infante D, Duarte, 6-11, B

2670 Loure, Portugal

전화 : 351 1 9824832 / 3 팩스 : 351 1 9824834

독자적인 협회설립 첫걸음

■ 스웨덴 무도연맹태권도부가 독자적인 협회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96년 10월 12일 열린 무도연맹총회에서 태권도독자협회 설립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는 97년 5월에 있을 스웨덴 스포츠총연합(S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스웨덴 무도연맹 태권도부는 임지표사범을 심판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푸에르토리코의 지역번호가 1월말 변경되었다.

1 809에서 1 787로(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임)

신임회장에 이상철씨

■ 미국 태권도협회(USTA) 신임회장 : 이상철

한편 이상철신임회장과 박연희 회장특별보좌관이 2월초 한국 방문.

■ 폴란드태권도협회 1월 25일자로 신임집행부 발표 :

회장 : 다리우스 노위키(Dariusz Nowicki)

사무총장 : 쯔비그뉴 리스터(Zbigniew Rister)

기술위원장 : 이수광 사범

한편 전임 안드레제즈 푸치니아르스키(Andrezej Puchiniarski)회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회장으로 선임.

• 협회주소 : ul, Reymonta 35,

60-791 Poznan, Poland

팩스 : 48 61 662 514

• 협회장집주소 : ul Bazynskiego 9,

10-066 Olsztyn, Poland

전화겸팩스 : 48 89 527 2730

팩스 : 48 89 523 53 16

■ 버뮤다의 지역번호 변경 : 1 809에서 1 441로

두 협회, 번갈아 회장에

■ 벨기에태권도협회는 네덜란드어 사용권협회(회장 :

룩 헤일리겐 Luc Heyligen 선출)와 프랑스어 사용권협회(회장 : 룩 수니에 Luc Sougne)의 두 협회가 번갈아가며 국가협회 회장직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 방식대로 다시 돌아간 것이며 벨기에



의 대부분 스포츠단체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97년도 국가협회 집행부는 회장에 Luc Heyligen, 부회장에 Luc Sougne 사무총장에 제라르 페르(Gerard Pere) 주소는 이전 그대로이고 E-mail 주소는 Luc, SOUGNE @ping. be

■ 이란태권도협회 : 4월 6~8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혁명기념 제9회 "10일간의 여명(Ten Days of Dawn)" 국제태권도협회를 연다.

■ 파라과이태권도협회 : 5월 16~18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제4회 남미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연다.

■ 멕시코태권도협회 : 5월 23~25일에 멕시코 아카포코에서 제1회 멕시코 오픈 국제태권도협회를 개최한다.



두억시니

호로아 글·그림

두 복면의 병어리 대화

운학동 뒷산 기슭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고 있다.
〈만의 하나 이 거사에 실패하면 목이 잘려 높이 내 걸린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탐관오리를 향한 끓어 오르는 분노가 죽창, 낫, 곡괭이 등으로 무장한 동학군들의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었다. 목숨을 건 긴장감과 뼈속을 파고드는 한기 탓에 농민들은 약속이나 한듯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어 살이 썩어 고부군수 조병갑의 목을 따기위해 동학군의 깃발아래 농민들을 모아 말목장터를 떠난 전봉준은 고부관아로 쳐들어가기전에 이 곳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있느라 부산했다.

그러나 산 정상은 고요했다.

정상 가까이에는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지름이 3m 가까운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어두운 밤하늘에 처박혀 있다.

『삐죽! 삐죽!』

난데없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삐죽새 울음소리가 거울새벽의 적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이 추운겨울에 웬 삐죽새일까?

이 산이라고 삐죽새가 살지 말라는 법은 없겠으나 삐죽새는 여름새가 아닌가.

『삐죽! 삐죽!』

그러자 이번에는 느티나무에서 그리 멀지않은 잡목 숲 그늘에서 또다른 삐죽새 울음소리가 먼저 소리에 응답이나 하듯 들려왔다.

주고받은 삐죽새 울음소리가 암호였던 양 느티나무 그늘에서 한사람의 그림자가 어슴프레한 달빛속으로 나타났고 잡목 숲 그늘에서도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나타난 것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의 군사(軍師)를 맡은 복면장사 두억시니였다. 괴이하게도 잡목 숲 그늘에서 나온 사나이 역시 두억시니처럼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다.

더욱 더 이상한 것은 이 두 복면이 잠시 마주보고 섰더니 입은 열지않고 각각 두손으로 여러가지 기호를 만들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화(手話)와 같은 형식이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두 복면의 사나이가……

보름이 얼마남지 않은 탓에 달이 거의 차있어 가가이서라면 상대 손의 움직임을 서로 알아볼 수 있을만 치는 밝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수화는 말 못하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손으로 만드는 기호가 전혀 달랐다.

설사 누가 엿보고 있더라도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낸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수단인 모양이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이 호젓한 곳에서도 이들은 손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일본공사관이 움직이고 있다.

『두억시니와 그의 부하인듯 싶은 복면사나이가 손으로 나누는 대화를 말로 옮겨보면 실로 놀라운 내용이다.』

『잔나비. 고부관아의 형편은 어떤가. 군수 조병갑은 동학군이 쳐들어 갈 것을 눈치채고 군졸들을 배치해 놓았느냐?』

두억시니는 상대를 원숭이라는 뜻의 잔나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본명이 아닌 별명으로 부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두령. 조병갑은 영성리 마을의 조아무개가 동학군이 쳐들어 온다는 것을 알려 주는 바람에 이미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부관아는 텅 비어 무방비 상태입니다.』

잔나비도 두억시니를 두령이라고만 불렀다. 어쩌면 이들의 조직에서는 본명을 아예 서로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우두머리인 두억시니만이 부하들의 본명과 얼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적에게 조직의 한사람이 잡혀 고문을 당하더라도 자기 조직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릴 수 없도록 자기네끼리 만날때도 얼굴을 감추고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일게다.

『서울에 있는 애들은 모두 잘 있느냐? 여우로 부터는 연락이 있었느냐?』

『네. 모두 잘 있습니다. 일본공사관을 염탐하고 있는 여우로부터 전서구(戰書鳩)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전서구란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시킨 비둘기를 말한다. 비둘기를 먼 곳에 데려가 날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이용한 통신수단이다.

『음 그래? 여우는 무엇이라고 전해 왔느냐?』

『오오토리(大鳥圭介) 공사는 조선의 정세를 낚날이



본국의 위무성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의 움직임을 상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동학의 움직임을 상세히 본국에 알리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일본공사관의 공관원 뿐만 아니라 조선에 나와있는 일본상인들까지도 자신들이 입수한 동학의 정보를 공사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

수화를 통한 대화였으나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두억시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잔나비. 머지 않아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될지 모른다.』

『네? 왜놈과 뽀놈이 조선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말 씀입니까?』

『그래.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 청나라 세력을 내몰고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한 억지명분을 찾고 있음

이 분명해.』

『그렇다면 동학군의 봉기가 일본군 조선출동의 구실이……?』

『그렇다네.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일어난 동학군을 벌미삼아 일본은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일본사람들의 보호와 조선정부를 돕기 위해 부득히 출병한다는 명분을 얻고 싶은 것일게다.』

『그렇다고 동학이 일단 뽑은 칼을 칼집에 도로 넣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음. 나라 안팎이 어떻게 돌아 가느냐에 동학군도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 전봉준장군의 안목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었을 때 두 사람은 의사소통을 위한 손움직임을 갑자기 멈추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난 것이다.

순간 두역시니는 느티나무 그늘로 몸을 날렸고, 잔나비의 모습은 잠목술 그늘에 빨려 들어갔다.

잠시 뒤 그 자리에 나타난 사나이를 보고 느티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두역시니의 눈에는 의혹의 빛이 짙었다.

『언기처럼 사라져 버렸군. 분명히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듯 여기저기 살피던 삼돌이가 체념했는지 산을 내려가자 느티나무 그늘과 잠목술 그들의 기척도 사라졌다.

조병갑의 간을 씹어 먹어야

고부관아는 동학군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시끌시끌했다.

고부관아가 텅 비어 있다는 두역시니의 보고에 따라 전봉준은 서슴치 않고 동학군에게 진격명령을 내려 군주 조병갑이 포악한 정치를 펼쳤던 본거지를 아무런 저항없이 점령해 버렸다.

『제기랄 이제 조병갑이 앉았던 자리야?』

돌쇠가 임자없는 의자를 발로 차면서 분풀이 했다.

『군수너석은 경황없이 도망가면서도 금은 재화 가운데 값나가는 것은 모두 챙겨 가버린 모양이야.』

『벼룩의 간도 꺼내 먹을 놈인데 맨손으로 달아났을 까닭이 없지.』

전 장군의 심복 삼돌이가 왜 이곳에?

조병갑은 곡식 700석이나 착취해

<아니 저건 전봉준장군의 심복 가운데 한사람인 삼돌이 아닌가? 저자가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났지? 몰래 내 뒤를 밟은 것일까?>

어느새 두역시니의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표창이 쥐어져 있었다.

표창이란 조선말에 무기로 쓰이던 단지는 짧은 창이다. 손안에 드는 정도의 길이로 창끝의 가운데가 갈록해 얹어 무겁기 때문에 던져 맞히기에 편하도록 되어 있다.

두역시니의 뛰어난 무예솜씨로 보아 여차하면 그 표창이 삼돌이의 목 깊숙히 꽂힐 것은 뻔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삼돌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혼자 중얼거렸다.

동학군들은 이방 지방 열여 제껴 보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었다.

어째까지만 해도 이곳은 무시무시한 권부(權府)가 아니었던가.

새로운 세상이 온 것만은 틀림없었다. 전봉준은 죄인을 가두어 둔 옥사를 열어 대부분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

조병갑은 착취에 관해서만은 귀재였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다는 불효죄(不孝罪), 사이 좋게 지내지 않았다는 불목죄(不睦罪), 행실이 음란했다는 음행죄(淫行罪) 등 법에도 없는 엉뚱한 죄목을 만들어 놓고 조병갑은 농민들을 잡아들여 돈을 바치면 놓아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매질로 다스렸다.

그동안 돈을 바치지 못해 억울하게 간혀있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은 기쁨을 나타내기 전에 조병갑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물었다.

『조병갑은 어떻게 됐소? 잡아죽였소?』

『조병갑 그 녀석의 간을 씹어 먹어야 할텐데…….』

모진 때에 장독(杖毒)이 올라 새까맣게 다리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농민의 입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인들 나오지 않겠는가.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탐관오리(貪官汚吏=탐욕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벼슬아치)의 표본이었다. 먼저 그는 농민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석보밀에 새로운 보(漕)를 파게했다.

보란 눈에 물을 대는 뚝과 수로를 가리킨다. 종전부터 있었던 보가 아무 탈없이 눈에 물을 잘 대주고 있는 데도 새로운 보를 또 파도록 지시한데에는 그만한 공공이속이 있었다.

당시는 보에 따라 수세(水稅)를 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필요도 없는 보를 또 만들어 그 보에도 수세를 매기겠

다는 수작이다. 조병갑은 이렇게 해서 700석이나 되는 곡식을 챙겨 사복(私腹)을 채웠다.

공적인 지위나 직권을 악용하여 금품따위를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챙기는 「사복을 채운다」라는 표현은 바로 조병갑을 두고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그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간한 땅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개간을 장려해 놓고 막상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나」는 듯이 강제로 세를 매겨 곡식을 빼앗았다.

조병갑은 중앙정부에 상납하는 대동미(大同米)도 실제보다 불려서 과세해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것도 잊

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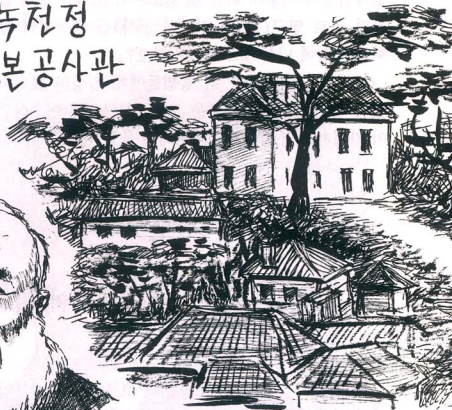
토지세를 내는 대동미가 통상 다른 곳에서 현미(玄米) 12말이라면 고부군에서 백미로 16말이나 내야했다.

현미란 왕겨만 벗겼을 뿐 인 쌀로 겉질까지 완전히 벗긴 백미보다 부피가 더 나간다.

따라서 현미 12말의 토지세를 백미 16말로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착취일 수 밖에 없다. 또 조병갑은 자

서울 남산 녹전정 일본 공사관

오오도리공사



기 아버지가 예전에 태인 군수를 지냈으니 그 공을 기리는 비각을 세운다는 핑계로 1,000여냥을 빼앗아 냈다.

조병갑의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다 못한 고부 16개면의 수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은 원통한 사정을 낱알이 밝히는 등소(等訴=연명으로 관청에 하소연 하는 일)를 냈다.

이 등소를 주도한 장두(狀頭=대표)는 전창혁, 김도삼, 정일서등 세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수장두(首狀頭=우두머리)는 전창혁이었다.

등소를 받은 군수 조병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키는 커녕 세사람의 장두를 전주의 전라 감영에 보내

무서운 매를 맞게 하고 고부의 감옥으로 되돌아 온 그들을 또다시 처참한 매질로 다스렸다.

끝내 전창혁은 옥에서 죽고 말았다. 이 전창혁이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원수 조병갑을 놓친 것이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했을 것이었으나 전봉준은 이를 내색치 않고 곡식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한편 군기고(軍器庫)를 부수어 동학군들 손에는 무기를 쥐어 주었다.

『군사(軍師). 우선 시작은 순조로운 것 같소. 이제 전라감영이 어떻게 나올 것 같소?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바로 영군(營軍=감영의 군사)을 출동시켜 동학군 진압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오?』

고부관아를 점령한 뒤 농민들에게 원성의 표적이 됐던 만석보아래의 새로운 보를 허무는 등 어수선했던 이 가시자 전봉준은 두억시니에게 물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조병갑은 전주감사에게

『전라감사 김문현은 조병갑을 고부군수로 재부임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번 일에는 낭패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 알려지면 자신도 문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소리 안나게 수습하려 들겠지요.』

『군사의 말이 맞소. 그 소리 안나게 수습하려 드는 방법이 궁급하오.』

『아직은 저도 짐작이 안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문현은 음험한 인물이라 틀림없이 우리의 의표(意表=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를 찌르는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억시니의 이 대답에 전봉준은 동감이라든듯 긴장한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봉준의 목을 자르라

전라도(全羅道)는 전주(全州)와 라주(羅州) 두

고을 머리글자인 「전」과 「라」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 마디로 지난날에는 전주와 라주가 전라도의 대표적인 고을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전주는 전라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이씨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전주 이(李)씨인 만큼 이씨 왕가 발상의 땅으로서 격이 높은 고을로 인정받고 있었다.

따라서 전주감영에 앉은 전라도를 다스리는 전라감사는 지방장관 가운데도 매우 무게가 있는 자리였다. 이날따라 전라감사 김문현은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정말 바보같은 일을 저질렀어. 저 못난 조병갑 녀석을 다시 고부군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일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김문현이 뉘우칠만도 했다.

지난해 11월 조병갑은 익산 군수로 발령이 나 고부를 떠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기 좋은 고부군을 떠나기가 싫은 조병갑은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매달려 다시 고부군수로 되돌아 온 것이 갑오년 1월의 일이다.

이제는 조병갑의 학정에서 벗어났다 싶어 기뻐했던 고부군민들은 조병갑이 다시 군수로 돌아오자 바로 죽창을 들고 일어나 조병갑이 전라감영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동학군의 고부관아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면 필경 나는 그를 고부군수로 재부임시킨 책임을 추궁당할 테니 이 사실을 서울에는 알리지 않은 채 동학군을 하루 빨리 해산시켜야만 내 목이 달아나지 않는다.〉

이미 세상을 떠난 영의정 조두순의 서절(서자인 조카)인 조병갑은 여러 고을의 벼슬을 돌아 지내면서 재물을 탐해왔던 인물이라 언젠가는 말썽을 일으킬 것이임이 분명했다.

그 조병갑이 고부군수에 다시 눌러앉게 해달라고 간청해 왔을 때 왜 뿌리치지 못했는지 김문현은 후회했으나 이미 었지러진 물이다.

일을 저지른 장본인 조병갑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까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영감. 제발 소인을 살려 주시오. 군졸 천명만 소인에게 내주시면 그 난적들을 모두 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 것은 바로 네 놈이 아니냐.」라고 호통치고 싶었으나 김문현도 심한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조병갑과 같은 통속이었기 때문이다.

동학군이 쳐들어 온다는 급보에 관옥을 입은 채 고부관을 뛰쳐 나온 조병갑은 지방토호인 은기남의 집에서 평복으로 갈아입고 정읍을 거쳐 길음아 나살려라 전주의 감영으로 도망쳐 와서는 뻔뻔스럽게도 군사 천명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박차고 일어난 김문현은 긴복도를 걸어 막다른 작은 방에 들어갔다.

두터운 벽으로 둘러싸인 그 방은 조용히 밀담을 나누기에 알맞도록 지어져 있었다.

김문현은 그 밀실로 감영의 영장(營將) 김시풍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매서운 눈초리의 김시풍이 정중히 고개숙여 인사한다. 밀실로 불러 올 때마다 감사로부터 밀명(비밀로 해야되는 명령)이 내릴 것을 익히 알고있는 김시풍은 귀에 온 신경을 집중 시켰다.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던 김문현은 드디어 조병갑에게 최후통첩을 내렸다.

『군사는 내 줄 수가 없소. 그대는 덕이 모자라 민란이 일어나게 했으니 삼가 근신하면서 추후의 처분을 기다리시오.』

더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없다는 듯 동헌에서 자리를

『영장, 고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들었나?』

『네. 동학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네. 이 일을 하루 속히 수습해야겠는데...』

『그러시다면 소장이 군졸을 이끌고 내려 가 단숨에

난적들을 평정시켜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김시풍도 그런 명령이라면 굳이 이 밀실에 자기를 부를 까닭이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영장이 내려가 주면야 동학무리들도 혼비백산해서 금새 흩어져 버리겠지.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소. 소란을 피우며 많은 군사를 동원하는 바람에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면 명색이 전라를 다스리는 관찰사인 나에게도 좋지않아. 그러니 서울에 알려지기 전에 속히, 그리고 조용히 수습되어야만 해.』

『하시다면 생각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라도?』

『논밭에서 농사일만 해왔던 무리들이니 오합지졸(烏合之卒=까마귀떼처럼 아무 규율도 질서도 없는 무리)인 셈이지. 그러니 우두머리만 없애버리면 그 무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 아니겠나?』

『하긴 그러하옵나지만…….』

『전봉준을 암살하는 거야.』

『하지만 워낙 동학의 무리가 많아 그 가운데서 전봉준을 암살한다는 것은…….』

김시풍은 감사도 그쯤은 알고 있을 터인데 라는 표정이었다.

변장해서 침투하면……

전주감영 밀실에서 감사 김문현과 영장 김시풍의 밀담은 꽤 오래 계속됐다.

『한편으로는 군위 정석진과 그의 부하 몇명을 전봉준 진영에 보내 동학군의 해산을 종용하도록 지시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힘과 재주와 뛰어난 군졸 여나프명을 장사치로 변장시켜 동학무리에 스며 들어가도록해서 기회를 보아 일제히 전봉준을 습격하도록 하게.』

김문현의 이 지시에 김시풍은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시풍이 침묵하고 있는 까닭을 알아차린 김문현은 얇은 미소를 띄우며 김시풍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아무리 감사의 명이라해도 그 위험한 일에 섰

나서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네. 그러합니다.』

『한 사람에게 500냥씩 준다면 어떨겠는가. 착수금으로 먼저 100냥씩 주고 일이 끝나면 400냥씩 주겠네. 어떤가? 이만하면 나설 자가 있지 않겠는가?』

김시풍은 감사가 제시한 엄청난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 진다.

당시 조선의 통화는 엽전이었다. 엽전 한냥이 일문(文)이고 100문이 한냥(兩)이다.

문현에 따르면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의 물가는 쌀 한 되가 75문, 무명 두자가 한냥이었다.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냥 20문이었으니 500냥이라면 1년치의 품삯이 넘는 거액이었다.

“큰 군사 풀지 말고 우두머리인 전봉준만 암살해” 김시풍에게 밀명이…

『그리고 전봉준을 습격할 때 몰래 달려보낸 100명의 포수로 하여금 동학군에게 집중사격 시키도록 하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나?』

김문현의 이 말에 김시풍의 표정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졌다.

『물론이옵시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오늘날에는 포수(砲手)라든 대포를 쏘는 포병을 가리키지만 그때는 사냥꾼이나 총을 쏘는 총군(銃軍)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러면 소장은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바로 정석진과 변장해서 동학군에 침투할 군졸들을 수배 하겠습니까.』

김문현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리고 잠깐…….』

삼돌이



밀실을 물러나려는 김시풍에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투로 김문현이 한 마디를 더 던졌다.

밀실을 나서려다 부르는 바람에 엉거주춤 동작을 멈춘 김시풍에게 김문현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이렇게 말했다.

『무예에 뛰어난 군졸 10명을 따로 은밀히 뽑아 이방으로 지금 보내주게.』

『네? 무예에 뛰어난 군졸 10명을 말입니까?』

『음. 그럴 일이 있네.』

김시풍은 감사가 군졸 10명을 따로 부릴 일이 있나보다 여기고 그러겠노라는 대답을 한 뒤 물러났다.

삼돌이가 얻은 정보

동학군의 주장이 아무리 옳고 뚜렷한 명분을 내세운 봉기라해도 서울의 조정이나 전주의 감영에서 보기에는 몹쓸 백성들이 일으킨 민란(民亂)가운데 하나일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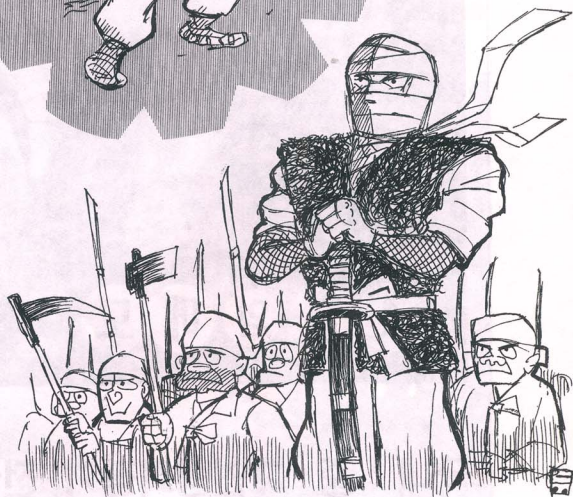
고부관아를 점령한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감영의 영군과 서울의 경군(京軍)이 출동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북면군사 두역시니의 건의에 따라 전봉준은 많은 수의 적을 맞아 싸우기 좋은 백산(白山)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부관아를 떠나 봉기의 출발점이었던 말목장터에 동학군을 잠시 주둔시켰다.

『군사. 그대의 말대로 드디어 김문현이 음모를 꾸몄소.』

흑룡이라는 검은 준마를 타고 사방을 한바퀴 둘러본 뒤 군영으로 돌아온 두역시니에게 전봉준은 변이 일어날 것임을 알렸다.

『장군. 김문현의 음모가 뚜렷이 들어 났습니까?』



『음. 조금 아까 삼돌이 녀석이 귀뜸을 해주었소. 전 주감영의 친구가 급히 전갈을 보내 알려 주었다는 거요. 김문현이 군위 정석진을 보내 동학군의 해산을 종용하는 한편 장사치로 변장한 군졸 10여명이 연초포(煙草包=담뱃집) 속에 무기를 감추고 스며 들어와 나를 죽인다는 것이요.』

두역시니는 놀라지도 않고 전봉준의 이야기를 머리 속에서 재빨리 분석하고 있었다.

〈도대체 삼돌이는 어떤 인물일까. 전 주감영이 극비로 삼았을 전봉준장군 암살을 미리 알아 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삼돌이가 윤학동 뒷산에서는 왜 몰래 내 뒤를 밟았을까?〉

〈다음호에 계속〉



▲플라이급 결승전 경기중 동성고 박성현(왼쪽)의 돌려차기를 선인고 이동연이 피하고 있다.

고등부 1,333명 -사상최다

올해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올해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에 출전한 선수는 1,333명으로 대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다.

종별선수권 고등부의 참가인원이 1,000명을 돌파한 것은 90년의 1,027명이 처음이고, 다음이 지난해의 1,054명이었다. 올해의 고등부 참가 인원이 1,300명을 넘어선 것은 유년 시절 태권도를 익힌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도 운동을 계속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자극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88년보다 거의 두배

종별선수권 고등부 참가인원

연 도	인 원
87년	865명
88년	767명
89년	864명
90년	1,027명
91년	977명
92년	945명
93년	888명
94년	958명
95년	963명
96년	1,054명
97년	1,333명

헤비급 김민수(서울체고) 왕좌에 등극

3월 3일부터 8일까지 올림픽 제 1체육관에서 97년도 종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경기가 열렸다.

총 1,333명(핀급 262명, 플라이급 214명, 밴텀급 232명, 페더급 224명, 라이트급 151명, 웰터급 112명, 미들급 69명, 헤비급 69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참가한 이번대회는 전년도 1,054명에 비해 참가선수가 280여명이 늘었다.

종별선수권 고등부 전적

핀급

결승전

이창환(서울체고) 우세승 1:1 손영복(단대부고)

준결승전

손영복 4:0 이창수(부광고)

이창환 5:3 정주용(경남체고)

플라이급

결승전

이동연(선인고) 7:6 박성현(동성고)

준결승전

박성현 3:2 황길재(전북체고)

이동연 6:6 감점패 김진모(광주체고)

밴텀급

결승전

서규남(태성고) 6:5 김선권(일동중고)

준결승전

김선권 2:1 손호영(서울체고)

서규남 6:5 정세영(동성고)

페더급

결승전

이태웅(금정고) 9:3 정우기(부산체고)

준결승전

정우기 5:4 장연성(개금고)

이태웅 3:2 이한석(충남체고)



▲선인고 이동연이 플라이급 우승자로 확정되는 순간

라이트급

결승전

하순철(개금고) 9:3 장부식(문성고)

준결승전

장부식 10:6 박성훈(부산체고)

하순철 11:4 박만춘(방어진고)

웰터급

결승전

이재석(강원체고) 9:6 김정기(대전체고)

준결승전

김정기 8:5 최희중(단대부고)

이재석 9:7 박석현(분당고)

미들급

결승전

김동균(대전체고) 12:11 김행철(선인고)

준결승전

김행철 11:7 황성훈(리라공고)

김동균 10:3 이승훈(고려고)

헤비급

결승전

김민수(서울체고) 6:3 오병철(인천북공고)

준결승전

오병철 3:1 최광택(선인고)

김민수 10:9 홍광석(문성고)



홍종수

원로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가원 부원장
전 대한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일본프로씨름인 스모에서 랭킹 2위인 세끼와께에 까지 진출했다가 민족차별에 불만을 품고 은퇴한 뒤 프로레슬러로 돌아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고(故) 역도산은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난 김신작이다.

어렸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 스모선수, 그리고 프로레슬러로서 크게 성공한 역도산은 2차대전이 끝난 뒤 공산정권이 들어선 북한에 돌아가 본 일이 없지만 고향에 남겨두고 온 부모형제, 특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이다.

또 황소의 뿔을 맨손으로 쥐고 실전가라데의 총수로 군림했던 최영의도 2차대전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고향인 전북 김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던 사람이다.

또 일본 프로야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타자인 재일동포 장훈도 효자로 이름난 사람이다.

프로레슬링, 가라데, 프로야구 등 종목은 각기 다르지만 그 정상에 군림했던 사나이들이 효자였다든 사실은 나를 감동시킨다.

효(孝)란 글자는 늙은 아버지를 아들이 업고 있는 형상을 뜻한다. 옛 어른들은 효를 사람으로서의

첫번째 도리로 꼽았다. 효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상을 바탕으로 있다. 해서 열댓 동양고유의 아름다운 덕목(도덕)의 내용을 분류한 명목) 가운데 하나로만 여기기 쉬우나 그렇지않다.

기독교구약의 십계명에도 네가지 종교적 계율 다음, 인간의 도리로서 첫 머리인 다섯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밝혀 놓았다.

「살인하지 말지니라」「간음하지 말지니라」「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등의 계명 앞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왔음이 분명하다.

효는 사람이 참다운 인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저울이기도 하다.

중국의 논어(論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유(子遊)가 스승에게 『효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정상의 사나이들 태권도인들이

『요즘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 뿐이라면 개와 말도 잘 먹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공자는 대답했다. 먹여 살리는 일만이라면

五 倫 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은 가 없을 은덕
어찌 다해 갚사오리.

가족을 키우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자는 대답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는다.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효와 가족 기르기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키우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형식적인 부모공양을 비판했다. 그리고보면 옛날 중국에도 마음속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저 끼니나 거르지 않게 해드리면 효도를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 족속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공자의 말씀대로 효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의 이 말씀은 가족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현대의 노인복지의 맹점을 찌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노인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할때 「동물애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모두 효자 노릇 「孝」에 앞장서야

효란 나이는 사람만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젊은 이들의 장래를 위한 덕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세월이 흐르면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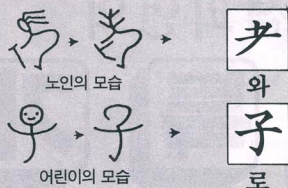
효의 사상이 뿌리깊이 내린 사회야말로 참다운 인간사회인 셈이다. 효를 어떻게 생각할 것은 없다.

① 나이가 어릴때는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 부모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는 것이 효다.

② 학창시절에는 학업에 열중해서 몸과 마음을 닦고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갖추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밝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③ 성년이 되어 결혼해서는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일이 효다.

④ 사회에 나가서는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효다.



어린이는 나이트 어버이를 잘 섬겨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나이트 부모를 등에 업은 모습으로 <부모를 잘 공양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⑤ 부모를 성심껏 봉양해서 마음이 편하도록 모시는 것이 효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예의 도덕을 숭상하는 민족으로 일본은 물론 중국도 우리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동경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웃 사람에 대한 예의는 땅에 떨어지고 오직 강자에게만 몸을 굽히는 한심한 풍조가 만연되고 있지 않은가.

전철을 타면 으레 차량앞과 뒷쪽에 「노약자의 자리」가 뚜렷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 기력없는 노인이나 병약자가 앞에 와도 모른 척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문맹이 없어 그 정도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텐데도 그들은 노약자의 자리를 강점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효의 사상을 기대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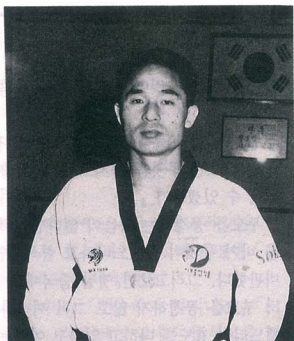
지금은 물질문명이 가져온 지나친 이기주의에 태권도인들이 도전해야 될 시대다. 모릅지기 태권도인들은 자기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네어른을 공경하며 어느 곳에서나 노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태권도인들이 이 나라의 도덕수준 향상에 앞장 설 때 국민들 모두가 태권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 『너도 태권도를 배워 몸도 튼튼하고 마음이 곧은 사람이 되라』고 권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챔피언의



좀 봅시다



이번호에서는 세계선수권 4연패의 정국현감독의 주특기가운데 뒷발 앞돌려차기와 뒤 후리기 두가지를 소개한다. 다른 기술도 모두 그렇지만 이 두 공격기술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재빨리 내뱉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자면 오직 꾸준한 훈련이 있을 뿐이다.

기네스북에 실린 정국현 씨

THE
GUINNESS BOOK OF SPORTS RECORDS

1995-1996

TAEKWONDO

Most titles Chung Kook-hyun (South Korea) has won a record four world titles; light middleweight, 1982-83; welterweight 1985, 1987. The women's record is three titles, achieved by Lynette Love (U.S.), 1985, 1987 and 1991.

공인된 기록만을 다루는 것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기네스북에 정국현감독의 태권도 세계선수권 4연패의 기록이 실려있다.

스포츠기록의 기네스북(96년판) 태권도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세계타이틀을 차지한 선수로 남자는 1982년과 83년에 라이트 미들급, 1985년과 87년에 웰터급 모두 4차례나 세계챔피언이 된 정국현(한국) 선수, 그리고 여자는 1985년 87년, 91년 세차례나 우승한 리네트러브(미국)가 올라있다.

도복 반듯이 머리말에,손톱 안 깎고

경기전의 습관

기네스북 투기부문에 세계대회 4연패를 이룩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정국현씨.

그가 가진 경기전의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그 전날 머리말에 도복을 반듯하게 개어놓았다고 한다. 정리된 도복을 보면서 긴장된 마음을 안정시켰다는 것.

그리고 손톱을 깎는대거나 하는 일은 될 수 있

으면 피했다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소화시간이 많이 걸리는 육류는 경기 전날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야채와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를 주로 했다.

무리해서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양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증감하는 것은 그가 강조하는 '경기전 몸만들기'의 방법이다.

① 열림새 자세에서

(특점부위를 노출시킨 자세,
앞발이 서로 달리 놓여 있을
때)

기술 · 1

뒷 발 앞돌려 차 기

② 뒷발을 앞으로 가져 오면서 무릎을 굽혀 올린다.

(앞발을 축으로 해서 뒷발을 재
빠르게 접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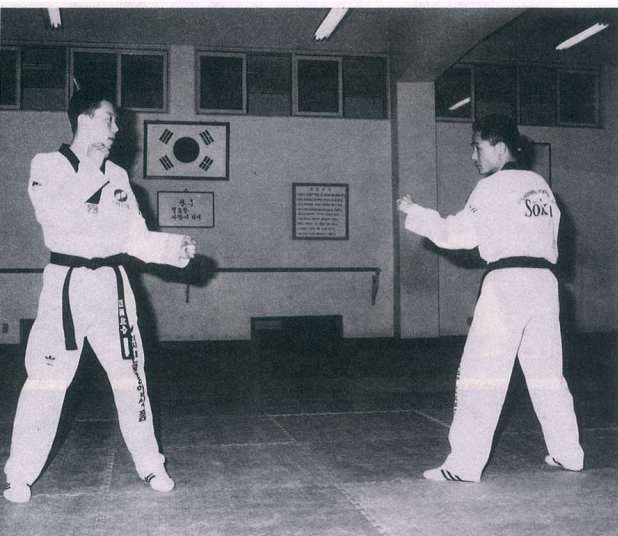
다리를 빠르게 접어 올리기 위
해서는 다리의 순발력과 배의
근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근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 필요하다.

③ 득점부위에 정확하 게 가격한다

(상체가 젖혀지지 않게
주의한다.)





기술 · 2

뒤 후 리 기

상대방이 뒷발 앞으로 끌어 앞발 돌려차기로 나올 때의 받아차기 기술

기본 단합새 자세

① 득점부위가 서로 단합상태, 앞발이 서로 같은 발로 놓여 있을 때



▲타구로 내려차기 연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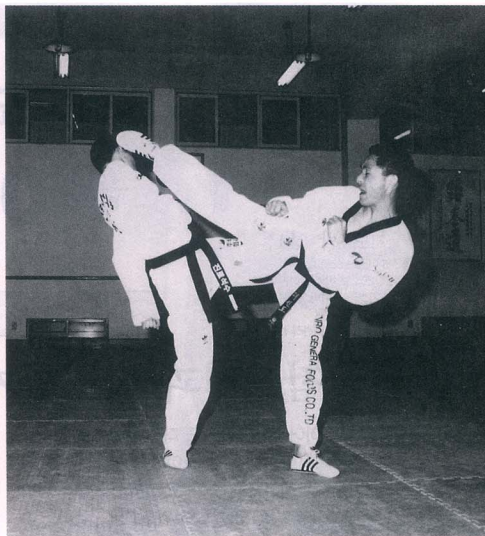
취재 메모

다리를 빠르게 접어 올리기 위해서는 다리근육의 순발력과 배의 근육인 복근이 강화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가운데 뒷다리를 앞으로 강하게 높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말고 별로 없다.

말도 뒷발질만 강할 뿐 앞으로는 잘 차지 못한다. 사람이 다리를 앞으로 강하게 찰 수 있는 것은 복근이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선수도 벤치를 이용한 sit



② 재빠르게 머리를 뒤로 돌리면서 어깨와 허리도 등뒤쪽으로 짧게 틀어 뒷발의 무릎을 약간 굽혀두고 몸과 함께 회전한다.(이사진의 경우 오른쪽으로) 차는 발은 후리듯이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수행한다.

* 윗몸은 뒤로 숙여서는 안됨. 공격부위는 상대의 턱을 향해 차야하며, 시선은 상대를 주시한다.

③ 득점부위에 정확히 가격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다리를 강하고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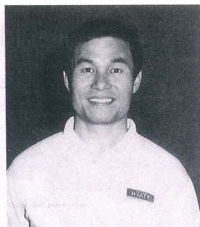
up) 등으로 복근을 강화하고 또 다리근육의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월간 태권도」에 연재중인 다리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심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본 태권도선배나,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

예비지식없이 마구 실시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상の原因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지도 : 박 영 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게임 2위
하이트 호텔 체력관리 센터 부장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국기원 심사위원)

점프력과 여러가지 킥의 힘 키우기

지나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다리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두가지를 소개하겠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다리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솟아 오르는 점프력과 여러가지 형태의 킥(Kick)의 힘을 키워준다.

언제나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호에서도 강조했지만 다리운동인 스쿼트는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부터 시작

해서 자기 몸무게의 1.5배 가량 들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니까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은 35kg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힘이 덜 들게 느껴지면 조금씩 무게를 늘려나가 100~105kg 쯤의 무게 사용을 목표로 삼는다는 이야기다. 회수는 8~15차례를 한세트로 삼고 처음에는 3세트 정도 실시하면 좋겠다.

다음말 한마디

하루걸러 주 3회씩

피로 쌓이지 않도록 조심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알맞은 것일까?

초심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초보자라면 첫 한달동안은 1주에 3번 하루걸러 격일제로 운동하는 것이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한가지 운동을 알맞은 중량(7~8차례정도 할 수 있는 중량)으로 7~8차례 하면 이것을 1세트라 부른다.

첫째주에는 1세트, 둘째주부터는 2세트 그리고 세째주에서는 3세트로 늘려 나간다. 통상 초보자는 한가지 운동을 3세트 정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시간은 초보자의 경우 준비운동 포함해서 첫째주 10분, 둘

째주 15분, 세째주 20분가량이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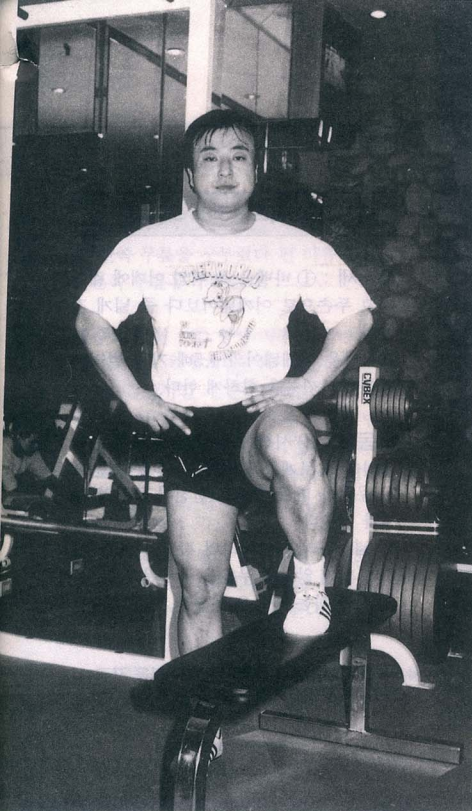
그러나 숙달한 사람이라해도 하루 1시간 30분이상 장기간 계속하면 만성피로가 쌓이게 되고 관절이상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좀 고달프다 느낄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아예 쉬거나 아니면 가볍게 실시해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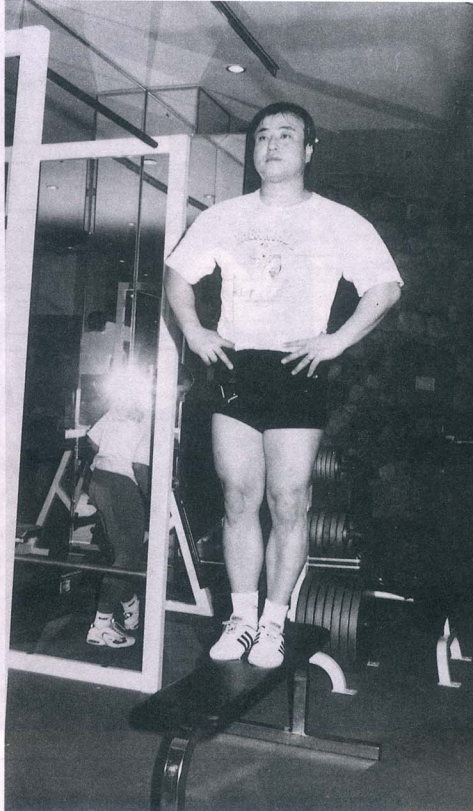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한 동작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스포츠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통상 근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려면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에서 2~3초. 위로 올라가는 동작에서 1초가 걸리도록 하고, 또 근육이 최대한 긴장한 상태에서 1초정도 멈추어서 한동작이 4~5초가량 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영 철>



▲한쪽 발을 벤치위에 올려 놓는다.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양허리에 올려 놓아야 체중이 제대로 다리에 실려 운동효과가 있다.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벤치 위에 올려 놓은 다리의 힘만으로 벤치위에 천천히 올라선다.

벤치 스쿼트 (Bench Squat)

■자세 : ① 한쪽다리를 벤치에 올려놓고 구부린 무릎의 각도가 90도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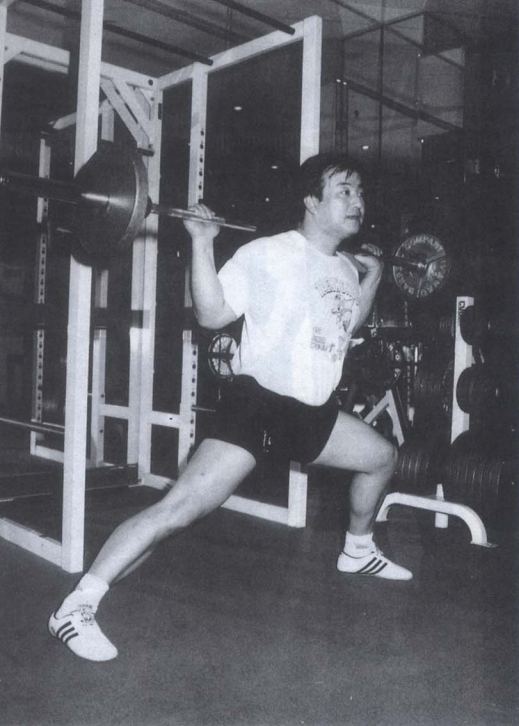
②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두손은 양허리에 올려 놓는다.

■동작 : ① 벤치위에 올려놓은 발에 체중을 실으며 천천히 올라서면서 다른 한쪽 발도 벤치위에 올려 놓는다.

② 벤치위에 두 다리로 선채로 한차례 두다리에 힘을 준 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다시 한쪽 다리도 내려 놓는다.

■주의할점 : ①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벤치위에 올려 놓은 다리힘 만으로 다른쪽 다리의 발을 올려놓도록 한다.

② 숙달될때까지는 사이드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한번에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운동하고, 중급자 이상이 되면 계속 한쪽다리를 7~8차례 운동한 뒤 다른쪽 다리로 바꿔 7~8차례 계속한다.



사이드 스쿼트 (Side Squat)

■자세 : ① 바벨을 목 뒤의 어깨에 짊어지고 두손으로 어깨넓이보다 좀 넓게 잡는다.

②두발을 어깨넓이의 1.5배 가량 벌려서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

■동작 : ① 시선은 항상 앞을 보면서 한쪽다리에 무게를 80%정도 싣는 기본으로 무릎을 발끝 쪽으로 천천히 구부려 자세를 낮춘다.

② 넓적다리와 종아리의 각도가 90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린다.

③ 처음 하는 사람은 무릎을 갑자기 많이

◀무릎을 구부리면서 넓적다리 앞부분을 자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동한다.

체형 한마디



▲충분한 준비운동(최소 5분이상)은 운동효과를 높이는 데도 또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을 다루는 운동이라 준비운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스피드, 오히려 높혀 요가로 스트레칭도

흔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관절이 굳어져 유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바벨이나 덤벨을 쥐고 충분히 근육을 뻗은 상태에서 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오무리는 상태로 그치는 정확한 동작만 되풀이 한다면 다른 경기 못지않게 유연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

물론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으로서도 그렇고, 고도의 유연성을 지니게 되기 위해서는 근육을 쭉욱 펴는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구부리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구부려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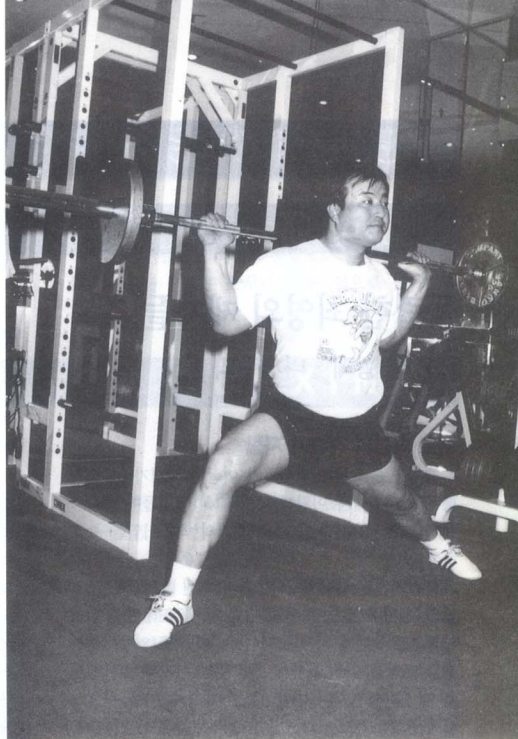
④ 한쪽 무릎을 구부렸다 편 다음 교대로 다른쪽 무릎을 구부린다.

■주의할점 : ① 항상 척추가 곧바로 펴져 있도록 척추기립근과 복근(배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운동한다.

② 숙달이 될 때까지는 한쪽 다리씩 번갈아 운동하고, 중급자이상인 됐을 때는 한쪽 다리를 7~8차례씩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련하고, 다리를 바꾸어 또 7~8차례씩 계속한다.

③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우면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의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양쪽으로 구부렸다 폈다해도 된다.

▶한쪽다리의 무릎구부리기가 끝나면 원 자세로 돌아가 다른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린다.



요가의 지도자이기도 한 나는 요가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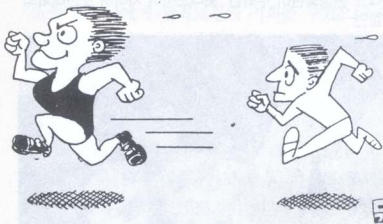
웨이트 트레이닝은 결코 유연성을 망가뜨리는 운동이 결코 아니다.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을 둔하게 만들어 스피드를 떨어 뜨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 주는 운동이다.

미국 스프링필드 대학의 스포츠 생리학자인 칼포 비치박사가 역도선수 300명, 역도선수가 아닌 체육대학생 150명, 일반대학생 150명 모두 600명에 이르는 18살부터 30살까지의 검사대상자들의 팔, 어깨, 가슴 등 신체 각부분의 근수축 스피드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역도선수들이 가장 빨랐단다.

우리나라의 태릉선수촌에서도 각 종목의 대표선수들에게 달리기를 시켜 보았더니 육상선수 빼놓고



는 역도선수가 가장 빨랐다는 보고도 있다.

근육을 정확히 펴는 동작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유연성에 도움이 되고, 근력을 강화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순발력을 키워 스피드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깨져야 한다.

〈이 호 열〉

'97월드컵 남녀부 모두 종합우승

올시즌 대장정 나선 국가 대표팀



올해 대표팀이 첫출전한
공식 국제대회인 '97월드컵
태권도 선수권대회(3월
6~8일 · 이집트 카이로)에
서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자
기의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
었다.

2월 27일 태릉선수촌에서
가진 선수단결합식에서 이
흥주 부회장은 유가리 단장
에게 단가인 태극기를 건네
주고 「태권도 중추국의 선
수답게 땀땀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여자 금메달리스트 두 사람 플라이급 서미라(왼쪽), 헤비급 정영숙

돌아온 '97 월드컵 금메달리스트

97년도 월드컵 태권도선수권대회(3월 6~8일 ·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단이 3월 12일 아침 개선했다.

남자팀은 지난 대회에서 빼앗겨 버렸던 종합우승을 되찾았고, 여자팀은 대회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은 뜻깊은 대회였다.

돌아온 금메달리스트들의 얼굴을 김포국제공항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 5명의 남자 금메달리스트 왼쪽부터 헤비급 김재경, 핀급 김병태, 플라이급 최만용, 라이트급 심기선, 웰터급 김경훈





내일 짙어질 고교 챔피언들

올해의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경기가 3월 3일부터 8일까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전 8일을 치러 8체급의 우승자를 가려냈다. 태권도의 내일을 짙어질 고교 챔피언들의 얼굴을 살펴본다.

정정당당히!

▼경기에 앞서 여수와 홍연욱(해비급)선수가 정정당당히 겨루겠다고 선서를 하고 있다.



『우리가 으뜸』- 영광의 승자들

▲(앞줄 오른쪽부터) 핀급 이창한, 플라이급 이동연, 밴텀급 서규남, 페더급 이태웅
(뒷줄 왼쪽부터) 라이트급 하순철, 웰터급 이재석, 미들급 김동균, 헤비급 김민수

『내가!』 손이 번쩍

▼해비급 결승전이 끝나고 김민수(서울체고)의 손이 올라갔다.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선수들의 트레이닝 센터인 태릉선수촌에서 올해의 국가대표 1·2진으로 뽑힌 상비군 남녀 8개체급 16명씩 1·2진 모두 32명의 선수들이 세계수준의

점프력 키우기

◀점프력을 키우는것도 중요한 훈련이다. 다른 무도스포츠에 견주어 화려한 발기술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 태권도에서는 허공에 치솟은 뒤 뻗는 발기술이 불만하다. 앞으로 차등점수제가 채택된다면 점프력을 이용한 공격은 자주 눈에 띄게 될 것 같다.

다리가 가쁜 부하(負荷) 이겨내기

▶남자 웰터급의 국가대표인 김경훈(한체대)이 부하(負荷)를 이겨내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훈련을 치르고 있다. 이 훈련을 한참하고 난 뒤 부하를 치워버리면 거짓말처럼 가쁜하게 다리가 올라 간다.



국가대표 상비군

시설을 이용하며 경기력을
키우고 있다.

「승리는 보다 많은 땀을
흘린 선수만이 차지한다」
는 신념으로 이들은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공격하기야?

▲호구를 걸친 트레이닝에서는 때로
실제 경기에서와 같은 힘이 실린 공
격이 나올 때가 있다.

『좋았어 다리 좀 더 뻗어!』

◀기술을 갈고 닦기위해 서로가 도움
말을 주고 받으며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타잔이 아닙니다

▲결코 타잔 흉내가 아니다.
악력, 어깨힘, 팔힘을 키우는
데에는 로프타기가 최고. 열심히
하다보면 손바닥에 굳은살
이 박힌다고.

코치 3인방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도하
는 3인방 - 왼쪽부터 양대승,
임신자, 전정우코치

역도선수가 아닙니다

▶『발차기의 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 바벨을 지고 스쿼트를 해야죠.』
여자웰터급 국가대표인 조향미(인천시청)가 웬만한 남자도 망설일 정도의 중량을 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허벅지 근육 강화운동

◀귀염둥이 여자 핀급의 대표 2진인 양소희(한체대)가 레그 익스텐션으로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발을 손처럼

강신철 관장



초대 발 격파왕

타이틀이 위력증명

이란 태권도협회 총관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태권도 교수(高手)회 회장인 강신철관장은 93년도 태권도한 마당에서 초대 발 격파왕으로 뽑힌 박기술과 위력이 매우 뛰어난 지도자다.

발을 마치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아름답고 강한 동작을 그려내는 강신철관장의 여러 모습을 살펴본다.



'97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위기일발의 순간-남자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김병욱(오른쪽·상무)의 번개같은 공격을 살짝 뭉속여 피한 심기선(경희대)이 착실한 경기 운영으로 우승했다.

97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2월 12~14일·국기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를 가려내는 대회답게 출전선수들이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불꽃을 튀겼다.

카메라의 렌즈에 잡힌 국가대표 최종선발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이 사람들이 남자대표

▲앞줄 왼쪽부터 신준식(페더급), 황병련(밴텀급), 최만웅(플라이급), 김병태(용인대)
 뒷줄 왼쪽부터 김제경(헤비급), 이동완(미들급), 김경훈(웰터급), 심기선(라이트급)

대표자리로 돌아온 김제경

▶모든체급을 통털어 가장 주목을 끄는 남자 헤비급 대표선수의 자리에 훌륭히 복귀한 김제경(상무)에게 이승완 부회장이 우승상장을 건네 주고 있다.



너무 힘들어요

▶『이야아!』 날카로운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자 페더급 결승전에서 진용순(오른쪽·춘천시청)과 정재은(한림여실고)이 원다리를 동시에 뻗고 있다. 진용순이 패권을 움켜 쥐었다.



『우리는 행복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자 핀급에서 우승한 김병태(용인대)를 안고 축하하는 조임형코치의 표정은 마냥 흐뭇하기만 하다.



『잘 들어!』 안타까운 코치의 심정

▼『잘 들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지켜보란 말이야! 그리고 헛점을 찔러!』

박계희 코치의 열띤 도움말에 귀를 기울인 박선미(춘천시청)는 끝내 여자 미들급의 대표자리를 차지했다.



날렵한 앞차기

▲남자 핀급 결승전에서 김병태(홍·용인대)의 앞차기가 박희강(청·한체대)의 안면을 엄습하고 있다. 김병태가 이겼다.



차분하기만한 여자 헤비급 우승자

◀다소곳이 김순배 부회장으로 부터 우승상장을 받는 여자 헤비급 우승자 정명숙(경희대)의 모습에서는 조금전 경기에서 나타냈던 용맹은 찾아볼길없고 차분한 분위기가만이 감돈다.



여자 대표선수들의 얼굴

▲앞줄 왼쪽부터 진용순(페더급), 황은숙(밴텀급), 서미라(플라이급), 박정희(핀급)
 뒷줄 왼쪽부터 정명숙(헤비급), 박선미(미들급), 조항미(웰터급), 신동선(라이트급)

『와아!
 포인트 땄다아!』

▶경기장면을 지켜보는 동료들은 모두 마치 자기 자신이 실제로 매트 위에 서있는 것같은 흥분과 긴장속에서 함성도 터뜨리고 비명도 지른다.



대한태권도협회 소식

실행이사진
일괄해임안 결의

▶ 대한태권도협회는 3월 5일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올 첫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97기술심의회구성 등 협회 행정을 둘러싸고 집행부 내부에 지나친 마찰이 빚어졌던 책임을 물어 전무이사 및 실행이사진의 일괄해임을 가결했다.
새로운 실행이사진 구성은 이필곤 회장에게 위임했다.



지난호(3월호)에 제가 쓴 「고두현의 스코어카드」라는 칼럼은 「바람의 파이터를 바짝 긴장시킨 박연희」였습니다.

그 글을 쓰고 맨 마지막에 사진을 구하지 못해 「박연희 사범의 늠름한 모습을 신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라고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맙게도 이 글을 읽으신 강신철 관장(태권도 한마당체육관·



감독 403명 심판 408명 참가

경기규칙 강습회

▲협회는 2월 17, 18일 이틀 동안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경기규칙 강습회를 열었다. 코치, 감독 403명, 심판 408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강습회에서는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서윤복씨가 「스포츠맨의 투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바람의 파이터」 긴장시킨

이분이 바로 박연희 관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126-13)이 지난 95년 미국에서 박연희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 주셔서 여기에 실습니다.

사진 가운데가 박연희관장(양복정장)이고 오른쪽이 강신철관장 그리고 왼쪽이 최인수감독(광주체고)입니다.

장소는 95년 US오픈 태권도 대회가 열렸던 콜로라도 스프링즈입니다.

강신철관장과 그의 선배인 최인수감독은 94년도 태권도한마당에서 발 격파왕과 주먹 격파왕으로 각각 뽐혀 부상인 항공원으로 다음해 미국을 방문, 박연희관장을 만났답니다.

귀중한 사진을 보내주신 강신철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나타냅니다.

(고 두 현)



4단이상 146명참가

94기 사범지도자 연수

▲국기원 연수원은 3월 3일부터 7일까지 태권도 4단 이상 고단자 1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94기 태권도 사범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태권도의 역사, 도장경영론, 지도법 등의 태권도 이론과 품새, 시범방법 등에 관한 실기특강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5일간 40시간의 일정.



상임심판원 교육

◀협회는 2월 27, 28일 이틀동안 경기도 청평에서 80명의 상임심판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임심판원 교육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심판원들은 심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보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다짐했다.